

定慧社

제21호 불기 2544년 여름호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신 정혜결사 결의문 3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일찍이 보조국사께서는 불법을 핑계삼아 나와 남을 구별하여 이익의 길에서 헤매고, 세상에 머물러 도는 닳지 아니하고 옷과 음식만 허비함에 덕이 없음을 탄식하며 정혜결사를 결심하셨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함께 결사하여 항상 선정과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것을 힘쓰며, 예불·간경·소임과 울력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인연대로 성품을 기르니 참다운 수행자의 삶이라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후학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옛 어른들이 걱정하신 일들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으니 어찌 걱정스럽지 아니하라! 물질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져 출가의 본분정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율사들만의 몫인양 떠넘기고 있다. 또한 강원 내부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로 대중 생활을 등한시하고, 불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사로운 행동들이 표출되고 있으니, 이러한 때에 이르러 새로운 정혜결사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고의 근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두고 실천하며, 수행자로서의 자기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일에 몰두하여야 한다. 또한 ‘승가’란 말이 가지는 ‘화합 대중’의 뜻을 되새기며, 상·하반간의 존경과 신망이 넘쳐나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강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덕목을 제정하여 정혜결사의 취지를 잇고자 한다.

1. 삭발일마다 대참회를 실시하여 출가의미를 새롭게 한다.
2. 예불 공양 울력에 신심을 다하며 항상 그 의미를 관한다.
3. 포살에 꼭 참여하며, 청규에 따라 화합한다.
4. 간경을 생활화하고 행주좌와에 늘 깨어 있도록 한다.
5.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을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한다.
6.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며, 정식(情識)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한다.

이를 실천함이 비록 작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빗방울이 모여 바다에 이르듯 무기력에 빠진 현대 불교를 되살리는 밑거름이 되며, 보조 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송광사 강원을 이루는 초석이 됨을 알기에 송광사 학인 하나 하나는 오늘도 묵묵히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定慧社

제 21호 불기 2544년 여름호



발행처/송광사 강원
발행인/智雲(講主)
편집인/기철(입승)
편집장/진관
편집/도현, 덕인, 정화, 효산
사진/효산

발행일/2544년 8월 1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5302

편집·인쇄/도서출판 法供養

조계의 물소리 편집부

사진 속 이야기 편집부 · 2

교수논단

정님, 근원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수행심리 지운 · 4

경전 한구절 밝은 마음 편집부 · 7

특별기고

경전 읽는 법 지현 · 8

송광사 강원의 얼굴, <정혜사> 연각 · 10

닭 한 마리의 공덕 성원 · 12

정혜탐방 범어사 강주 덕민 스님 편집부 · 14

회광반조

송광사의 꽃 진관 · 23

눌산(訥山), 눌인(訥人) 효산 · 25

시가 있는 풍경 편집부 · 27

특별기획

달라이라마와 그의 방한에 관하여 편집부 · 28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32

지대방이야기

인연 따라 일조 · 36

간병실에서 도현 · 37

조고각하(照顧脚下) 원교 · 39

나들이 능원 · 40

기획연재 4세조사 진명국사 편집부 · 42

출가기

회상(回想) 정화 · 46

죽음을 딛고 스님이 되어 무안 · 48

바람소리 한자락

수심팔훈(修心八訓) 적문 · 50

학인논단

서장을 통해 본 대혜선과 보조국사에 끼친 영향 덕인 · 52

정혜사 안내

편집후기





정념, 근원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修行心理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심리

정념이란 무엇인가?

정념(正念)의 정(正)자는 대상에 따라가지 않으므로 바른 것이며, 사상이나 철학을 전제하지 않아서 바른 것이며, 심지어 교리까지도 내세우지 않아 바른 것이며, 어떠한 견해도 정념의 념(念)에는 없기 때문에 바르다하는 것이다.

사상, 철학, 교리, 견해 등은 모두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相)을 따라가게 되면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 그래서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대상의 모습에 따라가지 않게 된다.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정념은 존재의 근원을 파악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수행심리이자 최후의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심리인 것이다.

비유하자면 가게 주인이 가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살피지만 손님 표정, 말 행위에 따라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작용이 없지 않으니,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더라도 감히 도둑질

하지 못하게 한다.

주인은 관조(觀照), 손님은 번뇌 망상(妄想)이다. 만일 손님의 용모가 아름답다거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말을 걸거나 따라다니면 주인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또 손님이 험상궂다거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여 도둑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건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모두 선입견이기 때문이다.

선입견에 좌우되어 자기의 생각을 내세워서 간섭하고 시비에 휩쓸려서 주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어지럽거나 혼란이 생기면, 또 진짜 도둑이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쉽게 주인의 눈을 피해 도둑질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살피기만 하고 손님을 간섭하거나 따라가지 않으면 감히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입견에는 사상이나 철학 또는 교리의 전제가 있다. 사상과 철학, 교리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손님이 진짜 손님인지 아니면 자기자신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선입견이 없

는 순수한 마음이라야 한다.

만일 사상이나 철학, 종교적 교리를 전제로 한다면 대상을 파악할 때 전제에 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떤 견해에 근거한 인식이라면 그 견해에 상반되는 견해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은 바르지 못하며, 견해에 의한 인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그 역시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 모두 혼란이기 때문이다.

손님은 머물지 않는다. 좋거나 싫거나 관계없이 떠나간다. 번뇌 망상인 손님에 대해 좋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싫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주인으로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다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옳다거나 그르다고 시비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대입시켜 손님을 정당화하거나 오인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손님은 손님이다.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아무리 사상이나 철학을 입히고 고상한 인격을 입히더라도, 그저 지켜보면 허공에 사라지는 향연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실에 어둡기 때문에

대상에 속고 괴로움에 현혹되어 사는 것이다.

무지(無知)한 무명(無明)에서 비롯하여 밝게 알려고 하는 데서 주관과 객관이 임의로 생기고 그로부터 괴로움이 생긴다. 주관이 객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주객(主客)이 괴리되고 갈등이 발생한다.

주장이나 사상,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두 이러한 주객이 분리됨으로써 야기된 갈등의 소산일 뿐이다.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을 차단하여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면 이 세계를 주객으로 분리시킨 원인인 무명(無明)이 사라지면서 명(明)으로 바뀐다.

<대승기신론>에서 “同相者 譬如種種瓦器가 皆同微塵性相이니 如是無漏와 無明種種業幻이 皆同眞如性相이니라”라고 했듯이, 본래 무명이란 진여본각(眞如本覺)을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어서 같은 것이다. 본각(本覺), 본래 깨달음과 무명은 진여의 성(性)과 상(相)이다. 그래서 주객의 접촉을 차단하여 주객이 없었던 본래의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면 진여본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주객이 나누어져 있으면 상대를 세워 분별하여 알려고 하는 생각이 늘 일어난다. 이를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본래 모르는 상태인 무명자리는 주객을 일치시킴으로써 생각의 흐름이 중단되면서 모르는 상태가 일어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

를 자각(自覺)하는 것이다. 자신의 무지 상태를 지켜보면서 다른 무엇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을 포착하여 알면 다른 무엇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모르는 무지상태로 유지된다.

모르는 상태를 아는 이것이 현재 이 순간의 깨어있음이며 이것이 지속되면 모르는 상태를 깨트리고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이다.

■ 무지에 대한 자각, 무명으로 향한

바른 견해를 세워 신심(信心)을 일으키더라도 이 신심을 지속시킬 수 있어야만 발보리심이 불지(佛地)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신심이 살아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념(正念)이다.

이 정념이 바로 믿는 마음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체험하게 한다. 구경의 깨달음인 불지(佛地)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정념이 하는 것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 즉 무명(無明)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수행의 목적은 법계(法界)가 하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홀연히 일어난 무명(無明, 모름)을 깨트리는 데 있다.

지식과 정보는 법계가 하나임을 모르는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삶은 괴로운 것이다. 따라서 알려고 하는 분별을 차단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최초의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자각(自覺)이 바로 깨쳐가는 시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최종의 깨달음을 ‘위없이 바르고 두루한

앎[無明遍知]’이라고 한 것이다.

깨달음은 무지(無知, 무명)에 대한 바른 앎인 것이고, 수행이란 이 무지에 대하여 자각하며 무명으로 향하는 정념과 다름아니다.

정념(正念)은 대상의 변화와 경향성 등의 움직이는 성격을 잘 알아차리는 데에 있다. 대상을 보더라도 변화를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되지 않고 대상의 이미지에 따라 가게 되어 과거나 미래로 넘나들게 되는 망념(妄念)이 되어 버린다.

왜 대상의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가.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生)을 좋아하고 사(死)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배를 관찰함도 배의 들어가고 나오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지, 그냥 배를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호흡관찰도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지 호흡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미세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

어디까지나 대상의 변화를 관찰해야지 형상을 관찰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대상이 변하더라도 념(念)은 대상의 형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형상의 변화를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해야만 알아차림이 된다.

■ 정념의 네 가지 기능

정념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 알아차림, 마음챙김, 깨어남, 억념

이 그것이다. 먼저 알아차림이란 대상에 최초로 접촉하는 심리작용으로서 대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대상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면 정념이 아니다.

사람은 생(生)을 좋아하고 사(死)를 좋아하듯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변하는 것을 선망한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그 대상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의 변화를 알게 되면 대상을 취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다보면 마음은 더 이상 변하는 대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 마음이 대상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 마음챙김이다.

이렇게 마음이 챙겨지면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대상은 변한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만이 있게 된다. 따라서 관찰은 현재 이순간을 정념(正念)하는 것이다. 만일 과거나 미래로 관찰하는 대상을 따라간다면 과거는 현재가 아니므로 어두움이며 미래도 현재가 아니므로 꿈을 꾸는 것이기에 깨어있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마음챙김이란 무상(無常)하게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상을 붙잡아 둘 수 없음을 알며, 그리하여 과거나 미래로 따라가지 않으므로 안쪽으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현재로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깨어남이란 마음이 현재 이 순

간에 늘 깨어있는 것을 말하며, 고타와 지혜가 개발되어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깨어있음이 지속되면 대상의 전후찰나를 잘 분별하여, 무상하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자아(自我)나 어떤 실체(實體)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깨어있음이 잘 유지되면 대상의 앞 순간[전찰나]이 과거로 흐르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순간[후찰나] 역시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남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앎은 무상(無常)·무아(無我)·공(空) 등의 법(法)을 체험하는 앎이므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 법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념의 앎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억념(憶念)이고 불망(不忘)이다.

깨어 있음이 지속되면서 사이사이 망념(妄念)이 떨구어지니 이것이 법의 현현(顯現)이며, 법이 무상(無常), 무아(無我), 공(空)임을 알게 되기에 깨어있는 마음은 곧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 무명의 앎과 정념의 앎

무명의 무지(無知)에 의해 일어나는 '알고자 함'은 대상을 분별하는 앎이니, 정념을 통해 아는 앎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명의 앎은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지식이나 정보로 인한 상(相)으로서 나타나는 앎이다. 이것은 상(相)으로서 존재하니 환(幻)과 같은 가상의 세계를 형성한다.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탁상시계를 생각할 겨를없이 바로 보고 시계인 줄 아는 것과 같으니, 이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시계라는 정보에 의해 드러나는 앎이다.

또한 이것은 연기실상(緣起實相)의 상호의존성을 망각한 무명에서 나오는 앎이니, 각 개체를 개별적이고 독립 분리된 관념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예로써 눈 앞에 시계가 있지 않아도 시계라는 개념어만으로도 시계를 연상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앎은 이미지로 인해 앎과 앎이 서로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실재하는 연기실상의 세계와는 무관한 가상세계를 반복 연출한다.

즉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 속에 변하지 않는 가상세계를 형성하니, 이러한 앎으로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앎이란 무지(無知)로 인해 괴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정념의 앎은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앎이므로 끊임없이 변하는 대상을 순간 순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앎은 이미지가 없으니, 무명을 깨트리는 힘이며, 늘 이 순간과 일치하므로 깨어있는 앎이다.



밝은 마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범부들은 욕심에 묶이어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니라.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얼룩새가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 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 빛깔보다 더 많으니라.”

잡아함경 제 19 ; 267 경 : <2-69하>



경전 읽는 법

지현(知玄) / 송광사 율원장

늦은 밤 달 밝은 창가에 앉아 등불을 의지해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온갖 번뇌는 없어지니 ‘이곳이 선경(仙境)이 아닐까?’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독경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고 즐겁게 해 줍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 주막집에 팔고 나오다 손님의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려 출가했다는 육조 혜능선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암자에서 매일 범화경 읽는 소리를 듣는 꿩이 업이 맑아져서 신도집의 외아들로 태어난 일, 매일 독경하는 소리를 듣는 개가 사람으로 환생한 일,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서 비를 피하기 위해 범당에 들어 갔다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 있는 것을 보고 제목을 몇 번 읽었던 인연으로 개로 환생할 몸이 인간으로 환생한 이야기, 소가 풀을 먹다가 콧김으로 경전 몇 장 넘긴 인연으로 소의 몸을 버리고 인간으로 환생한 일 등등 경전과 연관된 영험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삶은 고달픈 요즈음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할 곳은 진실한 자신들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뿐입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법신(法身)입니다. 요즘에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전을 읽는 일입니다. 시공(時空)을 초월해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기에 경전을 진리의 몸인 법신이라 합니다.

경전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천백억화신으로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자비와 지혜의 바른 길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자비와 지혜의 길인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거룩한 지혜와 자비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경전은 삼계의 번뇌의 집을 벗어나 극락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어리석고 박복한 범부의 자리를 뛰어넘어 복덕과 지혜가 구족한 성인이 되는 미묘한 진리의 문입니다.

그러기에 경전을 대할 때는 마땅히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으로, 다행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정성스런 마음이라 하겠지요.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으면 갖가지 복덕과 지혜가 나날이 자라나고 모든 재앙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으면 믿음과 이해와 수행과 증득인 수행사과(修行四課)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정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에 조금의 간단(間斷)도 없으며, 일체의 한가하고 잡된 일들은 생각하지 않음이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 등 번뇌의 생각들은 다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 고요함으로 경전을 읽으면 여덟 가지 업이 청정해질 것이니, 몸을 구부리고 앉지 않으니 신업(身業)이 청정해지고, 머리를 흔들거나 돌아보지 않으니 두업(頭業)이 청정해지고, 손으로 장난치지 않으니 수업(手業)이 청정해지고, 발을 무릎에 포개지 않으니(꿇어앉음) 족업(足業)이 청정해지며, 눈으로 사된 것을 보지 않으니 안업(眼業)이 청정해지며, 뜻으로는 산란하지 않으니 의업(意業)이 청정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업이 청정해지면 일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될 것이니 신비로운 영험도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1. 경전을 펴서 읽으려면 먼저 공경심을 내어 마치 부처님을 대한 것처럼 여겨서 삼가 한눈 팔거나 잡생각을 하지 말며,
2. 경전을 읽으려면 반드시 먼저 세수하고, 양치하고,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을 것이며,
3. 경전을 읽으려면 먼저 모름지기 일체의 탐진치 삼독으로 인한 질투, 경만(輕慢) 등 나쁜 생각, 말, 행동들을 지심(至心)으로 참회해야 하며,
4. 경전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마디에서라도 감동을 받으면 마땅히 희유심, 찬탄심, 환희심을 일으켜서 몸소 실행하고자 해야 하며,
5. 경전을 널리 권하고 인도하여 오탁악세(五濁惡世)의 현실세계를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로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며,
6. 만약 경전을 읽다가 망념(妄念)이 일어나거나 수마(睡魔)가 침입하면 잠시 독경을 멈추고 경전을 덮고 세수하거나 경행하거나 불보살전에서 예배하고 다시 읽을 것이며,
7. 읽은 후에는 항상 의지하고 본받고 받들어 행해서 힘껏 정진할 것을 생각하며,
8. 읽은 후에는 마땅히 이 경전으로써 이웃을 교화하여 현 사회의 나아갈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하며,
9. 읽은 후에는 시절인연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 분명히 해설해서 넓고 큰 자비로서 세상을 제도할 원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법시대에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 출가 수행의 길을 가며, 정혜결사의 도량이며 승보종찰인 송광사에서 경율(經律)을 독송하며 수행할 수 있게 된 인연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전 읽는 법을 소개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으로 나침반을 삼으며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다함께 깨달음의 길로 갑시다.

송광사 강원의 얼굴, <정혜사>

연각(然覺) / 10회 졸업

송광사는 조계산에 있다.

하지만 못 사람들은 조계산 보다는 송광사를 먼저 알아본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송광사 강원하면 먼저 떠올리는 강원의 얼굴은 <정혜사>이다.

조금 무리한 단정인 듯하지만 송광사 강원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낸 표상이기에 전 편집장으로서 가져보는 한갓 바램만은 아닌 듯 싶다.

어쨌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쁜 강원 생활에 덧붙여지는 <정혜사> 편집 소임은 소임자나 원고를 쓰게 되는 학인들에게 애물단지가 아닐 수 없다.

원고 모집도 만만찮고 원고 고르고 교정보고 편집하는 일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는 편집장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꼬리를 내리게 된 것도 ‘예전에 소임 볼 때 생각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한마디 때문이었다.

사실 옛 소임자로서 <정혜사>에 바라는 글을 써달라지만 소임을 놓은 후로는 발간된 <정혜사>를 차분히 검토해 본 적이 없었기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괜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당시에는 왜 그렇게 소임이 부담되었던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엄살이냐!’ 하겠지만 출가하기 전에 접해보지 못한 낯선 작업일 뿐만 아니라 원고라고는 한번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미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원고모집 해봐야 한 두 편, 반 강제로 백일장을 열어보지만 짧은 시간에 좋은 원고가 나올 리도 없고, 아쉬운 대로 원고모집이 끝나면 편집실의 글다듬기 작업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편집장 개인의 주관에 따라 글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책이 나오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 편집장이 곤욕을 치러야 하는 일이 가끔씩 생겼었다. 혹은 책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터질 경우, 편집위원들의 마음고생이 배가(倍加)되곤 했었다.

지금 편집실은 사정이 좀 나아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원고 부탁하러 암자에 들렀던 편집장이 놓고 내려간 <정혜사> 합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소임 볼 때의 부분들이 먼저 살펴봐 지는 것은 당시에 뿌듯했던 훈습 때문일 게다.

당시에는 그런 대로 교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고 편집이나 내용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건만 다시 펼쳐진 책 속에는 왜 이리도 어설픈 논리, 쓸데없는 군더더기, 불분명한 문구들이 많은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당시에 욕심을 부린 만큼 편집장 개인의 주관 이 덧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 놀랍기도 하고...

지나고 난 뒤에야 허물을 발견하는 어리석음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편협된 틀에 꼭 맞추어져 있던 껍질을 이제야 벗어 버리는 것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최근에 나온 <정혜사>를 펼쳐본다.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련된 편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수행시간을 빼앗는다는 핑계로 엄두도 못 냈던 '정혜탐방'을 비롯하여 '기획연재' 등, 편집위원들의 수고로움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자리를 잡은 듯하고, 그밖에도 <정혜사> 한 권만 펼쳐 보면 송광사 강원의 이모저모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잘 정돈된 것에서 편집위원들의 정성과 노고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정혜사>가 편집위원들만의 노고로 탄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강원 대중의 편집위원에 대한 배려와 좋은 원고, 그리고 <정혜사>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못해 써낸 원고들은 거의 편집실에서 다시 손을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편집위원의 손을 거치게 될 경우 원고 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편집실에서 채택한 원고는 본인들이 직접 교정을 하고 다듬어서 진정한 본인의 원고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선결요건일 게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자신의 글이 실렸다는 뿌듯함에 글쓴이의 <정혜사>에 대한 애정도 배가(倍加)될 수 있고, 관심도 높아져서 편집위원의 부담은 줄게 되고, 편집장 개인의 주관에 관계없이 강원 대중들의 생활 모습이 더욱더 생생히 담겨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인들에게는 강원을 떠난 뒤에 펼쳐보게 될 경우, 강원 시절의 그리움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귀중한 추억보따리 역할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지금까지의 역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강원 분위기가 혹 틀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엿보일 때, 강원의 면모를 일신하고 내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울곧은 소리를 토해내는 역할까지 담당해내는 <정혜사>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언제나 송광사 및 강원과 인연이 있는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 <정혜사>가 되고, 사람은 바뀌어도 최선을 다하는 편집위원들의 모습이 여여(如如)하기를 기원하면서…….

닭 한 마리의 공덕

성원 / 운문사 대교과

호미와 대야를 들고 너털너털 청신암 앞밭으로 가는 길, 웬일인지 웃음이 난다. 운문사에 살면서 근 몇 년 동안 하루도 여윌 수 없었던 호미, 토시, 장갑이 아니던가. 그것도 때아닌 수업시간에 밭일을 하러 간다는 것이 여간 우스울 수 없었다. 화염반이 되었다고 후원일이며, 밭일이며, 도량정비며……, 궂은 일을 손에서 털고 지낸 지 벌써 반년을 넘기고 있었다.

아침 수업시간.

수업하러 들어오신 학감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대방광불화엄경! 그 크고 현묘한 진리의 바다에 학감 스님의 걱정도 함께 녹아내리길…….

그러나 행운의 파랑새는 우리들 곁에 있지 않았다.

“오늘 새벽예불 참석 안한 사람, 108대참회 안한 사람, 다 일어서 봐!” 아마도 머피의 법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인가 보다. 평소에 예불 자리는 그 어떤 화염반보다 잘 지킨다고 자랑해 마지않는 우리 반이었다. 그러나…….

오늘만 빠져야지, 나 하나쯤이야, 갑자기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 등 각자 생각한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한 날 걸리게 된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나태심이 모이다 보니 결국 커다란 덩어리가 되었다. 학감 스님께선 초발심자들이, 강원 학인들이 어떻게 예불을 빠뜨릴 수 있느냐며 걱정을 하셨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수행을 하겠느냐고. 그날 수업은 경책으로 청신암 앞밭에 풀을 뽑고 돌을 고르는 일이었다.

어릴 적 나, 부처님 전에 예불 올리기를 좋아했었다.

또래들이 적지 않았던 절집에서 우리 노스님은 저녁 대종만 치면 도량을 쫓아다니시며 법당 가라고 성화를 하셨다. 결국은 갈꺼면서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당시 칠순노장의 애를 태웠었다. 아픈 다리에 회초리 하나 들고, 다람쥐보다 빠른 예닐곱 살 계집아이를 따라 도량을 뱅글뱅글 도시는 노스님이 어린 마음에도 가여워 대웅전을 도망의 종착지로 삼는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는 시원한 쭈쭈바가, 때론 껌 한 상자가, 때론 커다란 알사탕이 올려져 있었다. 예불이 끝나면 그 맛있는 것들은 우리들의 손으로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우리들은 짹짹 입을 모아 지심귀명례를 누구에게 질세라 크게 외쳤다. 아이스크림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탁자 위에서 녹아버리기 일쑤였지만 아직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로서는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에도 우린 개의치 않았다. 반야심경이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부전 스님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선다. 부전 스님은 “내일도 예불 빠지지 말고 꼭 나와야 한다.” 타이르듯 우리들에게 다짐을 받는다.

노스님에게 쫓겨 마지못해 간 예불이었는지, 아니면 부처님 앞에 올려진 맛있는 알사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불하는 시간만큼은 고사리같은 손을 모으고 야무진 예불을 올렸었던 것을 기억한다. 세월이 좀 흘러서야 그 알사탕들은 부전 스님의 사비가 털려진 꼬마들을 위한 배려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의 울력은 '경책'이라기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사람마냥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1시간 반 가량의 풀 뽑기와 돌 고르기는 이미 농사꾼이며 일꾼이 다되어 있는 우리들에겐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의 울력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오랜만에 잡아본 호미의 감촉을 즐겼는지도 모른다. 잡초와 돌로 가득했던 돌밭은 어느새 매끈하고 비옥한 취밭이 되어있었다. 경책인 줄도 모르고 또다시 흐뭇해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동업중생 말괄량이 우리 도반들.

울력이 끝난 후 나무 그늘에 앉아 보통 아랫반 스님들의 참으로 돌아가는 남은 밥을 김치 한 쪽씩 얹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더하여 옆밭에서 커다란 소쿠리 가득 고추를 따 50명이 다 먹었다.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식성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내가 부처님을 안 때로부터. 처음, 절 입구의 사천왕상을 보고 무서움에 못 이겨 일주일 꼬박 울음으로 지새던, 울다 지쳐 탁자 밑에 엎드려 잠이 들던 꼬마 계집아이를 기억한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그 사이 한 일이 있다면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예불 올리는 일이 고작이었을 게다. 그러나 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다. 20년이 넘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만큼의 사랑과 방황, 그리고 고뇌……. 내가 먹은 밥그릇 수만큼 갚아야 한다면 나는 남은 인생의 매일을 부처님 전에 마지를 올려야 할게다.

예불을 올리고 사탕을 받아먹고 나는 닭 한 마리의 공덕을 짓는다. 또 다시 예불을 올리고 일부에 의한 경책이긴 하지만 발두렁에 앉아 감칠맛 나는 울력참을 먹으며 소 한 마리의 공덕을 짓는다. 어찌하여 평생을 받기만 했음에도 예경을 드린 그 공덕조차 다시 내게 돌아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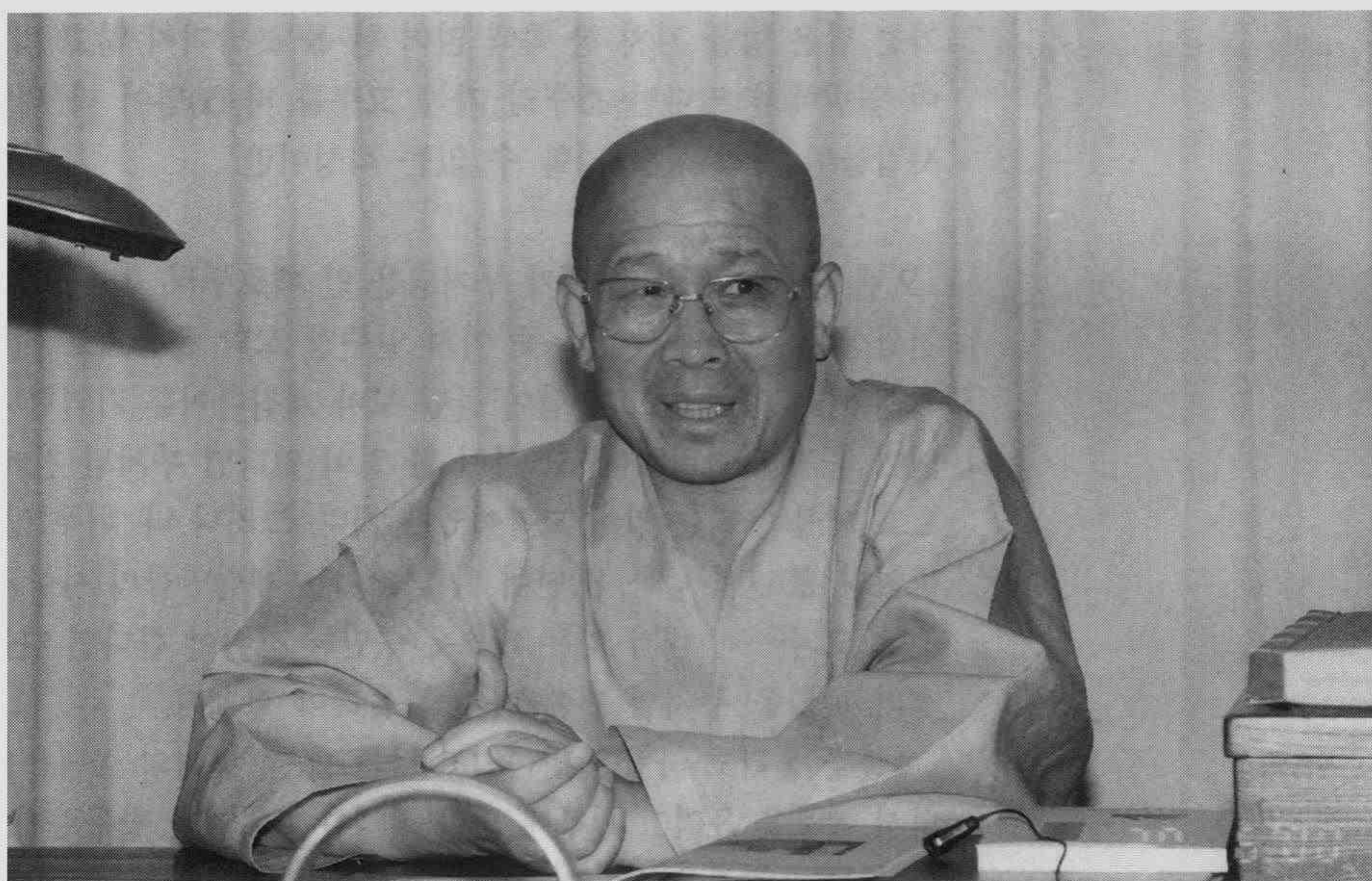
학감 스님의 걱정과 노스님의 성화가 아니었던들 가진 것 없는 내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빈곤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을까. 이제는 알아서 자신의 수행을 반조해야 할 때다.

닭 한 마리의 공덕과 소 한 마리의 공덕이 시은의 무게를 가늠한다. 옛 어른들의 행장에서선 조석예불을 거르지 않았음이 항상 강조되어 있었다. 의문이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어른스님들 행장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의 꾸준한 지속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수행자의 이름이 부끄러운 때다. 우린 얼마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고 사는 수행자인가.

정혜탐방

범어사 강주
덕민 스님



산정의 금빛 우물에 하늘물고기가 내려와 노닌다는 금정산 범어사.
일주문 지나 보제루 오르는 계단엔 보리수 꽃잎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대강백으로 이름난 강고봉 스님과 우룡 스님의 적손으로 강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후학들의 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범어사
강주 덕민 스님을 찾아 조심스레 수행의 파편들을 모아 본다.

편집부

요즘 하루 일과와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사에 입산한 지가 한 43년 됐는데, 그때부터 노스님 시봉을 해 가지고 내일 모레면 나이 60인데도 학인(學人)들 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 언제나 학인이란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學而時習之면 不亦悅乎’ 라는 <논어(論語)>의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생활을 하고,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붓글씨를 좀 썼는데 그만 쓰고, 요즘은 학인들 하고 탁구를 쳐. 그래서 요즘은 정말 건강이 좋아! (웃음)

노스님이나 은사 스님이 모두 대강백(大講伯)이신데, 그 분들의 자취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노스님은 황해도 해주 어른이신데, 어려서 한학을 하셔 가지고 사서삼경을 다 마치고 시(詩)도 아주 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4살 때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24살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 노스님이 ‘만일선회(萬日禪會)’를 하는데 가서 발심을 해서 출가해 가지고 쪽 선방에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대쯤 해인사 퇴설당 선방에 내려오셔서 여름에 정진을 하시면서 화봉 스님께 ‘한시 짓는 법’이며 ‘한시 고전’을 배우는데, 다른 이들 3년 걸리는 걸 그 어른은 재주가 있어 가지고 석 달 만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방에만 계시지 말고 부처님 장경(藏經)을 한번 보는 것이 안 낫겠나?’ 권유를 해서, 해인사·범어사 강원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28개월만에 일대시교(一代時敎)를 다 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노스님은 강(講)을 하셔도 주로 선(禪)적인 의미에 기준을 두고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독특해요.

그리고 우리 은사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하셔서 노스님 밑에서 공부를 꼭 하시고, 선방에 많이 다니셔서 요즘 강만 하신 스님하고는 좀 달라요.

저도 어려서 그런 어른을 시봉을 하다보니까 선시(禪時) 같은 것에 관심이 많고, 선적인 의미를 몸으로 찾다보니까 밖으로 잘 안 나가고 그래요.

어려서 노스님 시봉을 한 십여 년 했는데, 그 어른은 평소에 경(經)을 잘 안 보셔요. 앉아있는 것만 좋아하시고... 또 그 어른이 바둑을 좋아해 가지고 글은 안 가르쳐 주고 바둑만 두자고 그러고, 글을 가르쳐 주면서도 내가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세하게 해석도 안 해 줘요.

우리 스님은 글을 가르쳐주면 ‘하야’, ‘하고’, ‘모름지기’ 하면서 <초발심자경문>부터 몇 번 반복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노스님은 딱 한 번이지, 더 물으면 발로 차고 쫓아내고 그래요.

그래 그 어른은 글을 가르쳐도 생전 무슨 강을 한다든가 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고 다른 사람

이 연구한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그저 답만 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한번은 열 여섯 살 땐데, 불만이 많아 가지고 붓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부목이나 공양주·채공도 없고, 부전도 내가 해야 되고, 부목도 내가 해야 되고, 공양주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받도 같아야 되고...

그래 수도암 그 골짜기에 노스님을 놓아두고 도망을 가서 어디를 갈라고 했냐면, 어린 마음에 저 낙산사 흥련암에 가서 기도해 가지고 의상스님같이 연꽃에 앉고 싶은 생각도 나고, ‘저런 분이 어떻게 강주(講主)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 근기(根機)도 안 맞고 해서 붓짐을 싸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노스님이 나를 보고 뒤따라와요.

우리 노스님이 환갑 전이니까 기운이 있어서 주장자를 가지고 ‘민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데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아서 그냥 냅다 걸망을 지고 달아났는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 산중에 노스님 혼자 놔두고 도망간다고 하니 아침 예불, 공양 그런 것이 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어쩌나 보려고 돌아봤어요. 어? 돌아보니까 저 꼭대기에 노스님이 밑에 있는 어린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때, 소쩍새가 우는데 노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더라고. ‘내가 노스님을 버리고 어딜 가서 무얼 해야 되겠느냐.’ 그 소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입산 43년, 언제나 학인이란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합니다.

적새 우는 소리 들으니까 다리가
풀어지더라고. 그대로 주저앉아
가지고 한 두어 시간 울었어요.
그렇게 우니까 편해지더구만. 그
래서 다시 수도암으로 들어가 밤
이 됐는데, 호롱불이 켜져 있는
조실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니
까 우리 노스님이 그러더구만.
“장부가 헤어질 때는 오고 가는
분명한 말을 해야 내가 차비도 줄
건데, 못난 놈아! 왜 도망을 가느
냐?” 혼 좀 날 것 같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나 마음 구석이
젖어 드는지. 그래서 무릎에다 얼
굴을 처박고 울었어. 다시는 도망
안가겠다고.

어려서 우리 노스님 앞에 앉아
서 <서장>하고 <선요>를 많이
읽었어요. 노스님 모시고 가르쳐
주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공
양 지어 갖다 드리고 아침, 저녁
예불하고….

열 일곱 살에 <서장> ‘증개장
(答曾侍郎)’을 천독(千讀)했어요.
무슨 뜻이라든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는 염주가 없으니
까 잣을 따 가지고 한 번 읽으면

이쪽으로 놓고…. 그 뒤로는 무슨
<선요>라든가 <능엄경>이라든
가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노스님한테 안 배워도 글이 쉬
워지더라고.

해인사 강원에서 은사스님하고 같이
계셨다던데요.

해인사하고 범어사 강당 생활을
같이 했어. 스승하고 상좌가 같이
강당생활을 한 예는 아마 극히 드
물거야. 14살에 수도암 가기 전에
해인사 강원엔 있었는데, 겨울엔
노스님 시봉을 하면은 새벽 2시
반에 물을 데워 가지고 3시 되면
예불하러 나갈 때 그 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이 14, 5살인데 무슨 발
심을 해 가지고 절에 일찍 왔는지
모르지만, 잠이 부족해요. 잠이...
그래서 노스님 가사 장삼 뒷자락
을 들고 아침 해인사 계단을 올라
가다 넘어져서 머리도 많이 깨고,
눈을 감고 가다 그 대웅전 앞의
탑에 머리도 부딪히고, 잠이 부족
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공양을 하고
치문(緇門) 강의를 들으면 졸음이

막 쏟아진단 말이야. 우리 스님이
입승 보시면서 치문 중강을 하시
는데, 저 놈이 존다고 꼭 날 보고
새겨보라고 시키니까 보통 난감
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새기면 스님한테 혼이 나고, 하도
내가 두드려 맞으니까 우리 스님
이 ‘민아!’ 부르면 학인들까지 덜
덜 떨 정도야.

그리고 노스님 빨래, 스님 빨래,
내 빨래. 겨울엔 누가 빨래를 해
줍니까? 목욕하고 빨래하는 날
(보름에 한 번)은 새벽에 관음전
에 물을 데워 가지고 오전에 빨래
를 하면 보통 3시가 되는데, 어린
팔에 팔목이 부어요, 음.

또 스님한테 존다고 혼나고 ‘신
심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들
으니까 못 참겠더만. 절 집 생활
을 못하겠어. 그래서 정월 보름
전인데, 중노릇 그만하고 가야 되
겠다고, 이만큼 고된 짓거리를 어
떻게 참고 하겠냐고, 차라리 마을
에 가 가지고 고시공부하면 낫겠
다 싶은 것이 ... (웃음)

노스님은 글도 잘 안 가르쳐주
고 야단만 치고, 그래서 장경각
뒤에 가 가지고 가사장삼을 가워

로 베어 버렸어. 그러니까 장경각에 참새떼들이 한 오십 마리 날아와 가지고 ‘야야, 민아! 조금만 참아라.’ 자꾸 참새 떼들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 거기서 한 30분만 울면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가위로 쟈장삼을 다시 내 방에 가서 기워 가지고, 저녁예불에 다시 그 옷 입고 노스님 모시고 올라갔어요. 노스님하고 살다보니까,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가더구만.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뭐, 모두가 40년 전의 자네들 태어나기 전 얘기 같은데….

40년 전의 강원과 지금의 강원 분위기는 엄청 달랐을 텐데….

지금은 ‘탄허본’이라던가 참고서적이 있어서 보충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펜촉으로 잉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펜글씨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 노스님 때 내놓은 능엄경 강본(講本)인데 잉크를 쏟아 가지고… (잉크가 번진 책을 펼쳐 보여주심)

그래서 아무 주석서가 없으니까 확실히 물어야 되고, 물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뚫어야 되니까 경을 보는 경안(經眼) 열린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능엄경 전 5권 외운 스님들이 많았는데, 해석판 나오고 난 이후에 강원 학인들이 경 보는질이 엄청시리 떨어졌어요.

그게 선방까지 영향이 많아요. 강원(講院)에서 경을 잘 안보면 선방에 가도 그것이 중심이 잘 안

잡히거든.

강원에서 경안(經眼)이 열려 가지고 선방에 가서 어떤 화두를 든다든가 공부하는 데 일어난 모든 것을 다 경(經) 속에서 배운 경안(經眼)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강원이 부실하니까 선방도 부실하단 말이야, 음.

요즘 우리 강원엔 교재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재는 바뀌서는 안됩니다. 교재를 번역을 해 가지고 읽으면 쉽고 종지(宗旨)도 빨리 파악하고, 부처님과 제자의 얘기를 요즈음 대학 나온 이들이 몸에 빨리 젖어 든다고 하는데, 절 집안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 가지고 계속 반추하고 새기고 그런 공부 방법 속에서 경안(經眼)도 열리고 그러지….

우리 학인들은 원전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강원에는 서울대 나온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요. 개들은 무슨 팜플렛을 만들면 두 시간이면 척척 만드는데 능엄경에서 딱 걸리니까 헤매요.

8시간씩 공부하면서 능엄경 본뜻[眞意]을 모른단 말이야. 본뜻[眞意]을 모르고 계속 헤매니까 번역본 보면 개들 한 두 시간에 다 종지(宗旨) 파악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내고 읽고 묻고 자꾸 되새기니까 이놈들이 똑똑한 소리 안하고….

마을에서 불경(佛經) 볼 적에 천

하 쉬운 거 같고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더니만 원전(原典)을 갖다놓고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적에 주석서 없이 우리가 해결한 학인 질(質)하고, 요즘 학인 질(質)하고 보면은… 금강경 잘 보면 포교사가 거기서 나오고, 강사도 거기서 나오고, 율사도 거기서 나오고, 조실도 거기서 나오고,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요즘 학교 나온 애들은 딴 쪽으로 생각허대.

그러니까 강원의 원전교육이 100% 소화가 된 상태에서 교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우리의 전통 원전교육이 30%, 20%도 안되고 있잖아요. 열 명 있으면 원전해석하고 논강(論講)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에요. 강당에 6·70명 있으면 졸업해 나와봐야 중강(中講) 하나 날똥 말똥 한단 말이야, 음. 이걸 우리가 잘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니 없니 해야지….

지금도 <초발심자경문>을 애들이 와서 물으면 어렸을 때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발심 하나를 40년 동안 보아와도 모르는 데가 있는데, 요즈음은 대학 나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강원 교육 잘 시켜놓으면 저거들이 번역도 하고 모두 다 해내. 그걸 없앨라고 교재를 바꿔야 된다? 난 잘 모르겠어.

스님 공부하시는 데 가장 힘드실 때와 공부하시면서 환희심 났을 때 얘기 좀

절 집안의 공부란
원전으로 계속 반추하고
새겨 자기 힘으로 뚫어서
경을 보는 경안(經眼)이
열려야지,
해석, 주석판 보며 쉽게
공부하려 하지 말기를...



해주십시오.

그 어려서 <서장> 읽었을 때가
제일 신심(信心)나고, 뜻을 몰라
도 환희심(歡喜心)이 났는데...

<서장>은 대혜 스님 어록인데,
그 대혜 스님하고 그 당시에 쌍벽
을 이루고 있는 저 천동 쩡지 선
사라고 묵조선(默照禪)을 주창한
스님이 있는데, 그 분의 <묵조명
>같은 것들을 읽어보니까 그 글
이 또 그렇게 환희심이 나요. 참
부드럽고 정갈하고 의미가 깊
고...

대혜 스님은 질풍노도와 같아서
마치 앞에서 보는 무서운 달마스
님 얼굴 같고, 쩡지 선사는 달마
스님의 앉아있는 산 같은 뒷모습
처럼 그렇게 푸근함을 느끼게 해
서, 요즈음은 쩡지 선사 어록을
이렇게 보고, 대혜 스님을 이렇게
반추하고 하니까, '대혜'를 알라면
'쩡지'를 알아야 하고, '쩡지'를 알

려면 '대혜'를 알아야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이 때가 제일 신심이
났었고...

힘들었을 때는... 시봉할 때도
참 힘들었는데, 어른들 모시고 살
다가 글을 좀 읽겠다고 마을에 내
려가니까 거기 또 고충이 생기더
구만. 내가 머리를 기르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선비세계에 입
문을 한다면 모르지만, 머리를 깎
고 그 세계에 젖어 들어가 글을
읽으려니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을에서 글을 읽으려면 머리
를 기르라'는 등 일상생활에서 오
는 괴리감. 또, 막상 불교하고 유
교하고 이론(異論)이 벌어지면 지
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사람
들은 그 사람대로 유교사상에 젖
어 원체 뿌리가 깊다 보니까...
그 괴리감에 못 견디고 일주일 글
을 읽다가 밖에 나와서 설치고 돌
아다니고, 그렇게 글을 읽으려고
마을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학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노스님은 제대하고 나니까
열반하셨고, 은사 스님은 선방에
다니다 보니까 강은 내가 해야 되
겠다는 책임도 있고, 강본(講本)
도 나한테 있고 해서 69년도에 법
주사에 가서 <금강경> 강의를 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구만. <금
강경>의 '야보송'이라든가 '종경
스님'에 '육조 스님', 모두 대가들
이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전부
시(詩), 운율(韻律)을 달아 가지고
그런 선시(禪詩)가 나오니까, 어
려서 절에 들어온 내 입장에서 불

적에도 무슨 뜻을 알고 가르친다
고 애긴 하겠지만 너무 막막해.

노래 곡조를 모른다면 노래 가
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 '야보송' 이나 '시'가 나
오면 물을 데가 없어. 우리스님도
그걸 안 했고, 그런 거 물으면 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고 밀어붙여 버리고...

그래서 논어·맹자, 칠서(七書)
를 다시 읽다가 초개로 내려가서
두율(杜律)로 해서 당시(唐詩)로
한 몇 년을 푹 젖었다가 다시 금
강경 강의를 하니까 그 어른들의
살림살이가 조금 감(感)이 오고
그러더라고.

두율(杜律)에 대해서 공부할 때
는 그걸 좀 해결을 하면 시운(詩
韻)도 알고, <금강경>하고 접목
을 시켜서 옛날 어른들의 선(禪)
적인 리듬이 풍겨 나오는 유유자
적인 뜻을 확실히 이해하려고 관
심을 갖고 봤는데, 그 때 마을에
가서 내가 만난 그 어른이 글을
참 많이 읽었어요.

다섯 때부터 칠십 년 글을 읽었
는데 문집이 지금도 60권 나오
고... 서울 가서 물어도 해결 안
되는 시(詩)를 그 어른은 전통적
인 논어·맹자 이런 것만 공부하
신 분이 그냥 아무 관심도 없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생활 그
자체라, 음.

스님께선 한시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
니다. 평소에 즐겨 읽으시는 시 한 편
저희들에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題張氏隱居二首 其一

春山無伴獨相求
伐木丁丁山更幽
澗道餘寒歷冰雪
石門斜日到林丘
不貪夜識金銀氣
遠害朝看麋鹿遊
乘興杳然迷出處
對君疑是泛虛舟

두보가 자기 친구인 장씨라는 사람이 숨어사는 토굴에 찾아가면서 지은 시인데, 이백의 시는 보면은 '시선(詩仙)'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를 읊었지만, 두보는 벼슬길도 막히고 난리 중이라는 모든 사람의 그늘 위에서 자기가 고뇌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공감대가 간다 이 말이여.

'春山無伴獨相求'하니. 봄 산에 짝이 없이 호을로 그대 찾아가니.

'伐木丁丁山更幽'라. 친구 찾아가는 먼 산골짜기에는 나무치는 소리가 짹짹 다시 깊이 보인다. 시경(詩經)에 '벌목경전편' 이라고 친구 찾아가는 시가 있어요.

두보 시는 자기 소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나 학문에 연원을 두고 그것을 빌려다가 자기화한 역사의 시(詩)고 인간적인 시란 말이여. 이백의 술 먹고 춤추는 것보다는 두보의 눈물이 진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이 궁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야말로 진실 아닙니까. 웃음보다 눈물은 더 진한 거예요.

눈물이라는 건, 아름다운 거고 진한 거고 가식이 없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눈물은 열반의 모습이고 실상의 모습이란 말야. 그걸 두보가 잘 그려요.

'伐木丁丁山更幽'. 산이 깊어서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니까, 세속적인 소리·혼란스러운 소리·아비규환의 소리, 당나라가 완전히 들끓는 안록산의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짝 사라진 산의 경계가 그윽해 보인다 말이야. 그윽할 유(幽)자는 세속적인 때가 벗겨진 그 자리를 그렇게 본다 이 말이야.

'澗道餘寒歷冰雪'이라. 이 계곡 건너고 저 계곡 건너가니까, 이른 봄에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 가지고 눈이 살풋 쌓여있는 계곡을 건너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담박하고 깨끗하고 눈에 짝 들어오잖아요.

'石門斜日到林丘'라. 친구를 찾아가는데, 세상을 등지고 도(道) 공부한다고 하는 친구인데 마을에 있겠소.

'澗道餘寒'과 댓구로 '石門斜日'이라. 친구가 사는 문이, 돌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문에 저녁 해가 비치는 그 순간에 '到林丘'라, 친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不貪夜識金銀氣' 탐하는 생각을 멀리 여위어 버리니, 밤마다 당신 뜰 앞에 금 덩어리가 빛나는 걸 볼 수 있겠군.

친구를 딱 보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어.

'夜識金銀氣'라, 밤에 금은의 기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긴데, 전

국시대 난리가 나면 궁(宮)에 있는 보석 같은 것을 수각에다 집어 넣고 막아버리면, 밤에 그 기운들이 올라오는데 오직 보화에 뜻이 없는 자만이 보물의 빛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런 고사가 있는데, 보통 이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금 덩어리가 있어도 못 보는 거란 말이야.

'遠害朝看麋鹿遊'라. 당신 얼굴 보고 대면을 해보니, 해치는 생각·살생하는 생각을 멀리하니까, 아침에는 큰사슴이랑 작은 사슴이 당신한테 와서 재롱을 부리고 논다.

'不貪夜識金銀氣 遠害朝看麋鹿遊' 이 두 구절로 두보 시를 평할 때에 시의 성인[詩聖]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乘興杳然迷出處' 흥을 타 가지고 '杳然' 아득하게, '迷出處' 출하고 處할 것을 迷해 버렸어. 迷해 버렸다는 것은 길이 없어서 아득해져버렸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네 얼굴을 바라보니까 도심(道心)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도심(道心)에 흥이 막 살아나서 되돌아갈 생각이 없어. 그런 소리여.

'對君疑是泛虛舟' 그대를 대하니까 허주(虛舟)를 탄 듯 하다. '虛舟'라는 것은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빈배가 와서 내 배에 부딪히면 화 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비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영위한다면, 시비를 초월해서 자연의 흥취에 취해 살 수 있어. 장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한동안 두보에 미쳐서 두보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비 오는데 법주사에서 초혼제(招魂祭)를 지냈어. 그 때, 이번에 열반하신 탄성 스님이 재무를 봤는데 내가 비를 맞고 술을 따르고 있으니, 가만히 보니까 나란 말여. “비 오는데 저런 짓거리 안 할 사람인데... 정신이 좀 이상해졌소?” 그런 소리 하더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라고 했지. 누구를 만나려면 좀 미치기는 미쳐야겠는데, 비 오는 데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1,300년 전 사람인데 못 만날까봐 한번 미쳐봤어.

일반 시와 불가의 오도송, 열반송의 차이점이 있다면...

글쎄요. 내가 뭐 오도(悟道) 경계 안 가서 모르겠지만 일반 요즘 시들 보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못 읽겠더라고.

세태 같은 것을 직설로 표현해 놓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은 바람 ‘풍’자지, 직설적인 소리가 없거든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른 봄에 불어가지고 꽃을 피워 낼 때, 내가 꽃피우는 바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연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시’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칭찬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되요. 모르게 해서 뭔가 감화돼서 느끼게 해야 된다 이거요. 그 사람이 모

선시(禪詩)는
바람(風)처럼
자연스레 감화를 주는 것

一超直入如來地'라는
구름을 걷워주는
위산 스님의 선시.

“나는 산 위에서는
滂山이라는 아무개이지만,
백년 뒤에는
마을의 물소가 되겠다”

르게 훈계를 해주는 거여. 그렇잖아요?

바람은 여름바람 봄바람 다른 것인데, 여름바람은 신록이 우거질 때 천둥번개도 딱 치고 나무를 막 쓰러트리지만, 그런 바람들이 다 자연을 성숙해주고 단단하게 해주고 키워주고, 가을바람은 선선하고 갈 때도 가는 소리 없고, 올 때도 오는 소리 없고... 시(詩)라는 것은 그래야 돼요.

왜 한용운의 시 그런 게 있잖아요. ‘금강경 펴들고 읽노라니 꽃잎이 날아와서 금강경 글자를 가렸는데 꽃잎의 글자 읽어 무엇하겠는가?’ 그 얼마나 맘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성인(聖人)의 시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 선시(禪詩)도 그렇잖아요.

위산 스님 같은 분은 당시(當時)에 선방 풍조가 ‘성불해야 되겠다’, ‘조사(祖師) 되어야 되겠다’ 온 천하가 그런 병에 걸리니깐 법상에 올라가서 “나는 산 위에서는 위산(滂山)이란 아무개이지만, 백년 뒤에는 마을의 물소가 되겠다.” 그것이 범부와 성인의 어떠한 흔적을 감추어 버린 것들이결랑요. 그렇지 않아요?

생의 근원자리에서 볼 적에 하나의 근원자리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지은 물소면 어떻게 위산이면 어떨거요.

그 위산 스님의 하는 소리도 ‘차라리 물소가 되겠다’는 소리가 당시에 공안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시도 많이 짓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위산 스님의 그런 시들은, 마치



새가 저녁 노을에 등지로 돌아가려는데 그 첩첩 산중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등지로 못 돌아가니까, 위산 스님이 '산밑에 물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을 흠어주어서 그 푸른 숲 속의 새가 돌아가게끔, 일체 모든 선객들이 성불이다 조사다 그런 영상에 젖어서 '一超直入如來地'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산스님은 '물소가 되겠다.' 이런 것이 범부와 성인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그런 법문이에요.

그런 시(詩) 내용을 보면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우러나고, 요즘 시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시집 얘기 해봐야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초개에서 연습도 하고, 많이 짓고, 시를 한 수 지어야 아침 밥을 먹겠다고 하고, 글을 읽다가 앉아 있으면 거미줄 쳐보고 했지만, 옛날 어른들의 시를 따라 갈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음미하고 반추하고 그 어른들 닮아 학인 같이 사는 것이 보람된 생활이겠다

싶어요. 그런 고시(古詩)라든가 선시(禪詩)를 많이 외우고 오가해(五家解) 시를 많이 외우면, 절 집안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자연과 가까워지고, 부처님의 비어있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若見諸相 非相 卽見如來' 라고 산중 주인이 되고 자연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으로 산중에 사니까 한참 피어있는 보리수 꽃이 아침저녁 바람 부는 모습이 다 달라요.

아침에 흔들리는 잎사귀하고, 점심 때 하고, 석양 노을에 움직이는 것이 맛이 다 달라요. 그게 우리 모습이걸랑요. 느끼는 사람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사미의제와 강원(江原)의 이동질서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강원 의제는 일단은 내가 긍정적으로 봐요. 요즘 중 옷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막 중된 이들도 20·30년 된 스님들이나 입을만한 옷을 맞춰 입던데, 그 강원의제를 해서 두르니까 그놈들

이 그 옷들을 못 입어요. 사미나 비구나 너무 무질서하니까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해인사 같은데 49재 지낼라고 대적광전에 괴임새 차려 놓으면 <금강경>하는 학인들이 재도 지내기 전에 싹 훔쳐먹어요. 그래도 시비를 안 해요.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수행하는 놈들이니까 공양 올리는 차원이지 어떻게 저절 이상하게 손버릇 나쁘게 취급하냐 말여. 옛날에는 <기신론>이나 <금강경>을 배우면 학인들이 굉장했거든.

근데 내일 모레 강원 졸업할 놈 <화엄경> 본대두 사미다? 사미라고 하는 것은 <치문>하고 <사미율의> 배우면 사미인데, 대승경전을 배우고 최고의 진리를 배우고 <금강경>하고 <화엄경>을 본 애가 꼬맹이 사미란 말여.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난감하더라니까.

차라리 경반되면 비구계를 주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요.

원력이 있으시면...

글쎄. 원력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선방에 가서 앉으면 제대로 공부 할 것 같아요. 전에는 그저 모습으로 하고, 따라하고, 분심·용맹심으로 했는데 이제 선방에 가서 수행을 하면 본질을 알 것 같아요. 그것이 인자 느껴지고 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해제철에 <벽암록>이라든가 <굉지록> 같은 선문강의를 같이 토론해서, 석 달 동안 공부한 거 반조(返照)하고 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배워 나가는 데 일조(一助)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학인들에게 경책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발심하고 들어온 학인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리적인 것·선(禪)적인 것 나름대로 다 알고 오로지 도(道) 깨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 쪽보다 좀 열심히 치고, 청소 잘하고, 빨래 잘하고, 하나하나 과정을 차근차근 익혀 가다보면 결과는 자연스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행자로 들어와서부터 너무 선(禪)·도(道)에 치우칠게 아니라 그저 강당생활 하며 큰스님 시봉하고, 그날 배운 강주 스님 강의해 준 교과목 충분히 소화 다 하고, 반추하고 그러다 보면은 선방에 가도 잘 살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계종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물 뿌리는 것부터 그런 기초적인 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 ‘돈오(頓悟)’도 되는 것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돈오(頓悟)’ 얼른 하고 ‘점수(漸修)’ 할라고 생각하니까 학인들이 바빠.

우리 학인들은 <서장> 읽다가도 가 버리데. 너무너무 바빠 가지고 토굴에 가서 이거 해결해야지 해결 안하면 안되겠다고. 근데 바쁘기로 말하면 내가 가야지 지가 가서 되겠어. 바쁘게 생각할수록 더더 이 공부는.

옛날 사람들은 경전 한 구절 갖고도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 ‘그런 뜻이구나’ 이런 정도가 되는데 40년 걸린단 말여.

그러니까 이놈의 공부는 무슨, ‘一超直入如來地’ ‘화두타파’ 그 병에 사람들이 얼마나 골병이 들어. 절 집안의 선이나 교는 반추, 제자리걸음, 자꾸 돌아보면은 막아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면은 ‘因見明星云悟道’도 하는거 아녀. 익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새벽에 별 보고 앉았으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학인들은 청소 잘하는 것, 그 날 일과 착실히 하는 것, 쌓아 올라가는 것, 적은 것이 아주 제일 소중한다는 것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내 말 어디 신지 말여.



스님이 거쳐하시는 방 창살은 금정산이 걸림 없이 들어오도록 한쪽이 비워져 있었다.

화로를 사이에 두고

산을 대하는 스님의 찻잔에

작설물 가득, 말없는

푸르름이 산으로 간다.

일생을 강의로 정진하신

스님이시기에 방안에는 학자의

단아함이 풍겼고, 평소 두보를

흠모하신 성품 때문인지 얼굴엔 초탈한 시인의 미소가 가득하였다.

2시간의 자상한 답변에는

긴 세월 학인들을 지도하신

넉넉함과 배려가 가득했으며,

말씀마다 음유시인의 댓잎소리가 바람탄 듯 하였다.

송광사의 꽃

진관(眞觀) / 사교

來日綺窗前 寒梅著花未

그대 고향에서 오던 날
창가에 매화는 피었던가?

봄을 시작하는 꽃을 이야기 할 때 우린 흔히 매화를 이야기한다. 순백의 대지 위에 핀 하얀색과 홍·청의 매화는 아름다움과 향기뿐만 아니라(梅一生寒不賣香. 매화의 일생은 비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지조와 절개의 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다.

송광사에도 매화꽃이 많이 핀다. 대웅전 앞을 비롯하여 군데군데에서 봄을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화와 함께 시작의 자음을 겨루는 꽃이 있으니 바로 산수유일 것이다.

주로 한주 스님들의 거처인 도성당 담을 둘러 이른 봄날 한기 머금은 햇살을 받고 피어나는 노란 산수유 꽃은 가을날 붉은 열매만 큼이나 화사하다.

어릴 적 교과서에 나온 ‘눈밭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라는 식구절처럼 해열제로 쓰이는 산수유는 인근 지리산 온천 쪽에서는 봄 축제를 할 만큼 아름답다.

송광사의 제일의 경치는 어디일까? 보통 이들은 우화각 주변의 풍광을 이야기하고, 옛 어른들은 여덟 군데를 골라 적어놓았지만 우리 학인 들에게 가장 아름다움과 포근함으로 다가오는 곳은 보조국사님의 부도전일 것이다.

저녁예불 전 각단을 참배하고 부도전에 올라와 보조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은사스님 계신 쪽을 향해 문신(問訊)을 한 후 바라보는 모후산의 황혼.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은 많지만 그것을 보며 향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가끔이라도 황혼을 바라본다면 삶은 기쁨으로 충만 할텐데.

부도전의 봄꽃은 단풍나무의 빨강고 조그마한 꽃으로 시작된다. 가을 단풍의 화려함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단풍꽃이 피어야 비로소 모과나무꽃, 진달래, 철쭉과 산벚꽃 등이 피어난다.

오르는 계단 옆으로 붉고 푸른 영산홍이 피고,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불두화 피어나면 부도전은 보조 스님의 화엄회상이 된다.

이때쯤 두견새 우니 그 소리가 참으로 처량하다.

杜鵑汝眞情薄物
一生只爲洛花啼

두견새여 너는 진실로
정이 박한 새로구나
일생을 다만 봄날
꽃 지는 것만을 슬퍼하니.

왜 두견새는 봄날에 울어 이런 오해를 사는지, 아니 그 많은 새소리 중에 오직 두견을 탓하는지는 눈을 감고서 봄날 꽃핀 송광사를 상상하며 두견새 소리를 떠올리면

알 것이다.

눈을 뜰 때쯤 세상의 많은 슬픔을 대신하여 봄날 꽃 지는 것을 슬퍼한 두견의 마음을 느껴보아도 좋을 일이다.

하안거가 시작될 무렵 조계산은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120여 명의 수행납자들의 결의 또한 싱그러울 때, 상가와 매표소 주변에서부터 산중턱에까지 군데군데 피어나는 순백의 이팝나무의 만화(滿花).

어릴 적 논가에 하얗게 필 때면 모내기하던 허리 펴시며 풍년이 온다고 기뻐하던 어른들의 미소, 중·고시절에 한껏 멋내고 시골가는 토요일 달밤이 더욱 좋던, 추억을 고스란히 머금은 이팝나무는 전설의 꽃과 같다.

밤이면 피는 꽃이 있으니 달맞이꽃이다. 위쪽 지방의 꽃과는 약간 달라, 조금은 큰 모습이 다부지지 못해 정감 가는 이 꽃은 송광사 어디든 피어나 밤을 밝힌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밤새워 달을 바라보다 지칠 아침이면 꽃이 더욱 싱그러워 지는 일이다. 인간들의 기준이면 지쳐 포기할 때도 되었는데 달맞이꽃은 비우고 비움으로서 텅 빈 충만을 배웠을까?

언제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하늘의 달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나보다.

송광사에 아름다운 꽃이 어디 이뿐일까.

관음전 가는 길목에 다소곳한 할미꽃과 금낭화,

백일홍 아래 옥잠화 금잠화,
10월이 지날 때쯤 이국적 향기로 피어나는 대숲의 차 꽃,
향기의 제일로 치는 종고루 옆 금목서 은목서...

굳이 수행자가 꽃을 좋아함은 왜 일까? 단순한 아름다움의 추구만은 아닌 것도 같은데...

꽃의 밝음 때문일까? 향기 때문일까? 어리고 약한 것은 초발심의 우리를 닮은 듯 하고, 가슴 가득 씨를 머금고 있음은 우리의 희망이 될 것도 같다.

聞我名者免三塗
見我形者得解脫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삼악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으리라.

언제나 세상의 밝음과 향기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꽃을 좋아한다고 하면 조금은 억지도 있는 것 같다. 그저 '아름다워서!'가 솔직한 것 같다.

요즘 포행을 하며 이 꽃 저 꽃 찾아다니며 즐겨하는 나를 보며 놀랄 때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중생활이 짜증나기 시작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의견의 합일을 보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꽃과 주변의 자연의 모습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생겼다.

'대중 속에 살면서 대중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없이 웃어주는 꽃들과 자연에게서 기쁨을 찾는다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의 끝자락은 무슨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모든 현상에서 나를 돌이켜 보지 못하고 탐착한다면 꽃의 아름다움에도 미안한 일일 것이다.

백일홍이 피면 송광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옷을 입는다.

구순금족(九旬禁足)의 하안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송광사 곳곳에는 붉고 푸른 백일홍이 방울방울 피어나기 때문이다.

'花無十日紅'이라 했는데 백일 동안 왕자님을 기다리다 죽어 꽃이 되었다는 공주의 전설 때문인지, 백일홍만은 만행을 떠나는 스님들을 배웅하며 국화 향 날 때까지 미소짓는다.

눌산(訥山), 눌인(訥人)

효산(曉山) / 치문

조계산 산자락을 끌어다 한 폭의 산수화에 그려 넣는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소나무는 그려 넣기 쉬워도, 높고 낮음에 두드러짐이 없는 조계산 산자락을 그리려 한다면, 붓은 떨리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힐 것이다.

산을 오르나 그 숨소리가 유연하여 막힘이 없어야 하고, 가끔 독야청청한 소나무의 굵은 선을 선명히 드러낼 만큼 부드러워야 한다면, 차라리 산등성이에 올라 마음놓고 깊은 한 숨 화선지에 쏟아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송광사는 그러하다.

너무도 잔잔하여 애달픈 생각마저 불리일으키는 계곡과 속세에서 올라 온 이 빠진 이무기가 예까지 마중 나온 청룡을 만나는 ‘청량각’까지….

한 치의 비틀림도 없이 자란 편백나무의 숲이, 비라도 오면 질퍽 질퍽 해지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끼고 돌아가는 것 또한 그러하고, 화려하게 장엄된 일주문 아래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면 품에 안길 것 같이 작은 원숭이상 또한 그러하다.

용맹스러운 신심으로 뚝뚝 뭉쳐져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될 것 같은 절 집에서 마주치는 모양이 어딘가 덜 채워진 듯하고 어눌한 듯한 모양이 송광사의 얼굴이려니 생각하면, 오히려 도량의 풀한 포기조차 의미심장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한창 화단에 핀 접시꽃 또

한 기와조각으로 영성히 잇댄 울타리 덕분에 그 소박함이 돌담 너머 어염집의 아낙네와 같이 느껴지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일까?

그렇게 눈여겨본다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강당의 큰방으로 쓰는 정혜사의 처마 밑에 잠시 머물러 어눌한 산자락 아래 어눌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아침으로는 선선했던 초여름이었다. 이 때는 벌들이 새 집을 찾아 강산을 헤매는 때였는데 막 오전 간경을 끝내고 몇 스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도 살려고 찾아 왔는데 억지로 쫓아낸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공양 때마다 뽕뽕거리며 방안을 날아다닐 생각을 해 봐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도 그렇네요.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들은 순식간에 강당을 뒤덮었고 어서 여왕벌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 듯 더욱 큰소리로 뽕뽕거렸다. 그 와중에도 우리 스님들은 다른 한 쪽에서 10분 동안이나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벌떼처럼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 농사일에 잔뼈가 굵은 스님 한 분이 두 팔을 휘저으며 빨리 쫓아내야 한다며 모든 격론을 중지시킨 이유는, 그 벌들이 쏘이면 치명적이라는 ‘한봉’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 벌들은

소용돌이 모양의 춤을 추며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때서야 사다리가 동원되고 그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되려 쏘이겠수. 썩 연기로 쫓아내보오.”

누군가 걱정된다는 듯 말을 건넸다.

옆에 서 있던 나는 급한 김에 채 공간에서 쓰는 알루미늄 채에 썩 차를 털어 넣고 성냥불로 불씨를 만든 다음, ‘불아, 불어라!’ 후후 불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모양을 보고 한 스님이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별집 밑에서 후후 불어대는 내 모습도 그러했지만, 그것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다 보는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하였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석 달이 지나갔어도 별에 쏘였다는 스님은 없다는 것이다.

“전생에 저 여왕벌이 총림의 방장 스님이 아니었을까요?”

“내년 봄엔 처마 밑으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옛 기운이 아직도 살아있는 관음전 계단의 난간에는 이가 서너 개 빠진 돌사자가 위엄 있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과 함께, 관음전 처마 아래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용 두 마리가 함께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며칠 전,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의 일이다.

부대가 순천에 있어 송광사 포교당인 대승사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도심인지라 옛 정취를 찾아 볼 수 없었지만, 대략 3·40년 된 은행나무가 절 마당에 있어 물어보았더니, 구산 스님께서 손수 심으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그늘 아래 세워진 공덕비에서 시주자였던 어느 보살님의 이름을 찾아보고, 다시 은행나무의 높이를 가늠해 보았다.

한 때는 순천시의 피난처로 쓰였다는 대승사. 한 그루의 은행나무가 내 의구심을 일으켜 지나칠 뻔했던 6·25 전쟁 당시의 역사를 듣게 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송광사에도 그런 것이 많지 않은가?

모후산이 건너다 보이는 감로탑비가 그렇고, 눈 부릅뜨고 말없이 구산스님의 ‘네거리 위 돌사자’라는 화두를 한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은 대웅보전 앞의 해태상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작게는 분명히 교체해야 할 때가 지났지만, 기어코 쓰러질 때까지 쓰실 요량이신지 탁상보를 씌워 여태까지 쓰고 있는 삼일암 응진전의 낡고 낡은 탁상 하나와, 새로 상좌를 맞이하신 화엄전 노스님께서 처음으로 정성스레 내 주신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두 통까지...

눈에 띄지 않아 그냥 넘겨버리면 영원히 못 볼 것이요, 보았다면 오

히려 더욱 선명하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푸르름이 있는 송광사.

오히려 더듬거리며 건네는 말이 더욱 진실해 보이는 것처럼 더듬 더듬 조심스레 산을 오르는 모양이 너무나도 진지한 듯한 이런 모습이 늘산(訥山) 아래 늘인(訥人)들이 모여 사는 조계산 송광사 스님들에 대한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조심스레 자랑해본다.

시가 있는 풍경

風磬

이 바람에...
새벽까지 깨어있다

달무리 마냥
비워냄도 시끄러웠다.

물에 오른 물고기가
깜깜한 산길을 기어가다

악!

폭포에서 떨어지는 꿈에 놀라
한참을 덩그랑 거렸다.



1. 달라이라마

지구상의 마지막 불국토였던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 히말라야 협곡의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쳐 있는 산길을 돌고 돌아 도달할 수 있는 이곳, 해발 1800m를 휘감아 도는 구름과 바람 위에서 티베트인들은 멀리 고향의 만년설을 회상하며 살고 있다.

신앙의 자유와 민중의 생존을 위해 저항했던 지난 반세기,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의 주인 티베트인들은 서구인들이 부러워하던 불교적 이상향을 잃고 이웃나라 인도 히말라야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인구의 5분의 1인 120만 명이 살상을 당했지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힘사(비폭력 평화주의)’ 정신은 간디 이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아힘사 정신을 티베트 독립문제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이 어렵다면,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자치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만큼 티베트인들에게 불교 문화의 전통은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자 영혼의 고향이다.

세상사람들에게 평화의 스승으로 추앙 받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어로 ‘큰 바다와 같은 지혜를 갖춘 스승’이란 뜻이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들에게

는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 받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 국가의 통치권자이다.

‘달라이라마’라는 칭호는 제3대 달라이라마 ‘소남가초’ 때부터 사용했으며 후에 초대와 2대에게도 이 칭호가 추증되었다.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가초는 1935년 5월 5일, 티베트의 동북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제 13대 달라이라마 툽텐 가초의 환생자로 확인된 그는 네 살 때 라사의 포살라궁으로 모셔져 제 14대 달라이라마로 추대되었다. 이후 티베트의 전통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던 중 1950년 중국의 침공을 받아 조국이 중국에 합병되는 수모를 겪는다.

1959년 티베트에서 반 중국시위가 일어나자 인도로 망명한 그는 다람살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아힘사 정신’에 입각해 독립운동을 해오고 있는 그는 티베트인들과 전 세계 평화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에도 막사이사이상과 스웨덴의 월렌베르히 인권상을 받았다.

2. 방한(訪韓)에 대하여

달라이라마는 스스로 칭하듯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세계인들은 그의 평화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인류의 공존을 위한 훌륭한 나침

반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핵무기, 전쟁과 같은 구조적 폭력으로 미래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세계의 인권 환경 평화운동가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

또 70년대 이래 그가 만난 50여 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평화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달라이라마가 단순한 망명국의 정치지도자가 아닌 세계적인 사상가요, 정신적 지도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나라만이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이유로 방한을 거부해 왔다. 1600여 년의 불교의 역사가 살아 있고 또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더욱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해야 할 시점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의 정치적 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요,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종교가 분쟁의 도구화되는 것을 막고, 범종교적인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의 기운을 확산시켜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는 금년 6월 14일 방한준비위원회에 밝힌 달라이라마의 기본 입장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다면 세 가지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첫째, 한국불교와 불자들을 만나

한국불교의 전통을 배우고 싶으며 둘째, 종교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해 종교학자,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으며 셋째, 인간의 가치를 공유할 대중들을 만나고 싶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난 순수한 종교와 평화의 입장을 전한 메시지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추진할 자체조직의 미약과 정부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금년 3월 31일 불교계에서 먼저 73개 단체로 ‘범불교대책위’를 출범시켜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책위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방한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이유로 불허하였다. 그 후 꾸준한 조직 확대와 이웃종교와의 연계로 범국민적 기구로 재편하였고, 이에 힘입어 끊임 없는 방한요구에 정부는 6월 21일 “외교통상부 장관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교황의 방북이 실현되는 즈음에 아직도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다 방한을 허용한 정부의 태도는 외교라는 이름을 내세운 종교차별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달라이라마가 방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이땅에 평화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그가 평소에 주장했던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무기거래에 관한 우려, 환경의 위협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또한 불자의 입장에서 중국정부의 위협과 망명정부의 힘든 고난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되는 그의 수행을 본받아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3. 송광사 스님들 달라이라마 친견

금년 4월 1일 송광사 방장 스님을 비롯한 율원장 스님, 강주 스님 등 6명의 중진 스님들이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였다. 송광사출신으로 티베트에서 12년째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수행하고 있는 청전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방장스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건넜다.

“지구촌의 불교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두가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행자들이 불퇴전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스님들이 안정과 발심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법문으로 응답하였다.(본문 별쪽에 기재)

한편 참석했던 스님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자상한 답변을 해주었는데, 다음은 강주스님과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문: 망명정부를 이끄시고 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어떻게 그런 편안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저는 항상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생부터 익혀왔던 삶의 철학인데, 이러한 철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기에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나 번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 전통수행의 교육방식을 지키면 현대에 뒤떨어지고, 현대에 맞추다 보면 전통수행의 방식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답: 부처님 당시나 그 이후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사상도 발전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번뇌와 망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후 용수보살 시대 인간의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를 볼 때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심성, 지구의 문제점 등은 모두 우리 인간의 번뇌와 삼독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의 근본을 알고 마음의 근본을 알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시간이 넘는 대담동안 선물로 가져간 보리수 염주를 돌리시며 미소를 머금은 달라이라마의 순박함과 진솔함은 그 분의 삶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였다.

이후 한국에서 다시 만남을 기원하며 아쉬운 친견을 마쳤다.

달라이라마의 법문



우선 이렇게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길이었을 텐데, 스님들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티베트 사람이고 여러분은 한국 언어를 쓰는 분입니다. 티베트인 대만인 중국인 일본인 등 언어와 민족은 다르지만 똑같은 부처님의 한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대승과 소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승은 중론에서 그 심오한 가르침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종파가 있고, 그 종파들은 인도, 일본, 중국, 스리랑카, 타일랜드등 각 나라의 전통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각 나라마다 서로 이해하면서 폭넓게 가르침을 수용한다면 보다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종교와 가르침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넓고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만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중생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우리 자신의 어머니처럼 보고 실제 어머니처럼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특별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승에서는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신 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의 특징이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고통을 여의고 부처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법’과 ‘공성’을 분석해보면 그것의 바탕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법이 공(空)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 모든 범부와 중생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기법과 공성입니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불교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 할 것입니다. 불법에는 이러한 ‘연기법’과 ‘공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진리중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또한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면 절대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발심을 일으켰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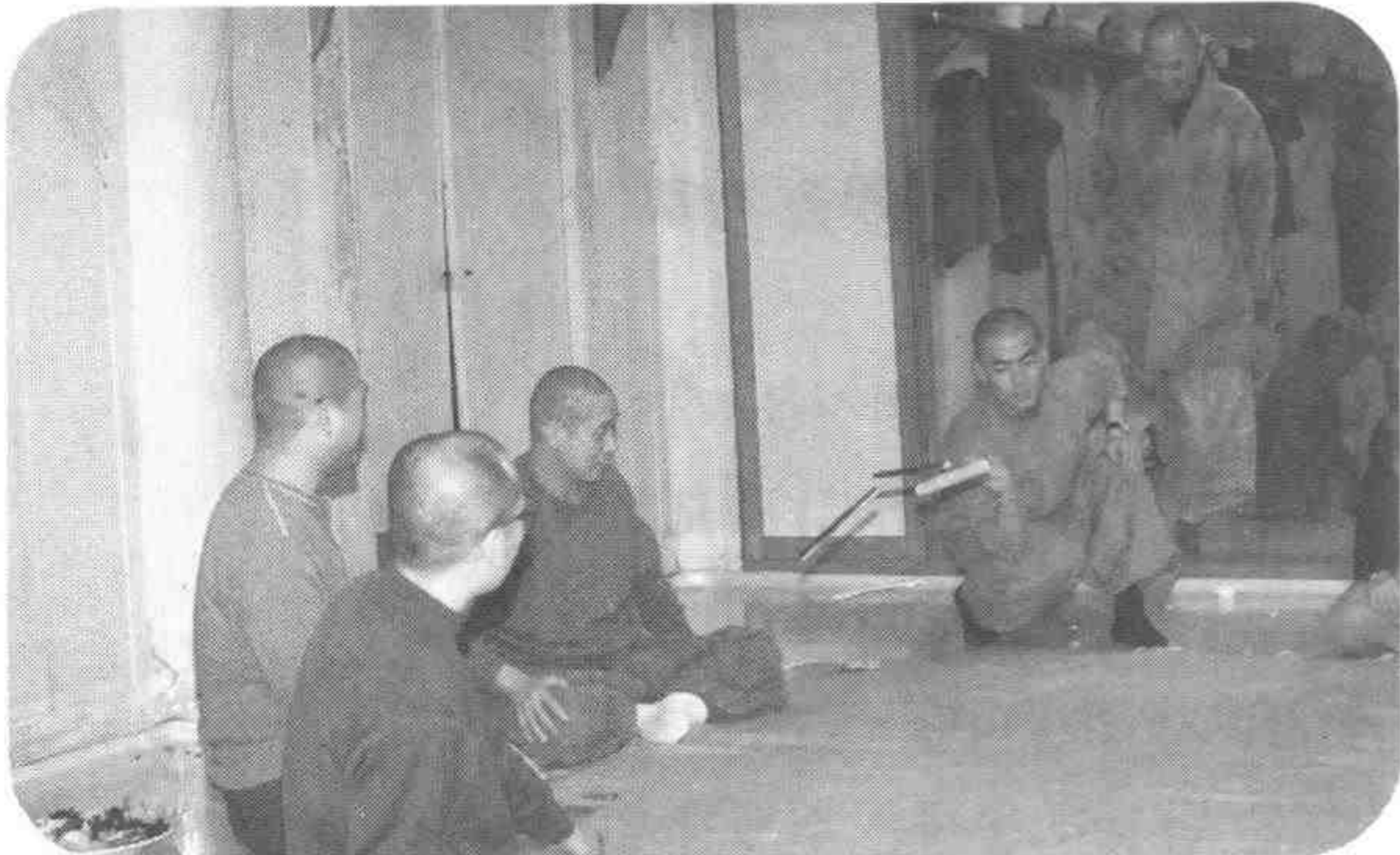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1월 24일 ~ 2월 3일 대만 국제 범패대회

그동안 지속되어온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대만 불광산사에서 주최하는 <대만 국제 범패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강주 스님, 학감 스님을 비롯한 학인 스님들과 어장 원명 스님, 정오 스님 그리고 율원 스님들이 먼 길을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2월 5일 설날 윷놀이

새해를 여는 아침, 통알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낭랑한 선창에 맞추어 대중이 삼 배 올리고, 떡국으로 마지 올렸습니다.

저녁예불을 마치고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정겹게 윷놀이를 했습니다. 방장 스님과 회주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가 상품이 되어 흥겨움이 더해졌습니다.



2월 18일 11회 강원 졸업식

졸업을 축하합니다.

응진, 선문, 덕우, 무념, 대용, 일법, 원각, 혜륜, 홍근, 보일, 성구. 11분의 스님들이 4년 간의 정진을 무사히 마치고 각기 인연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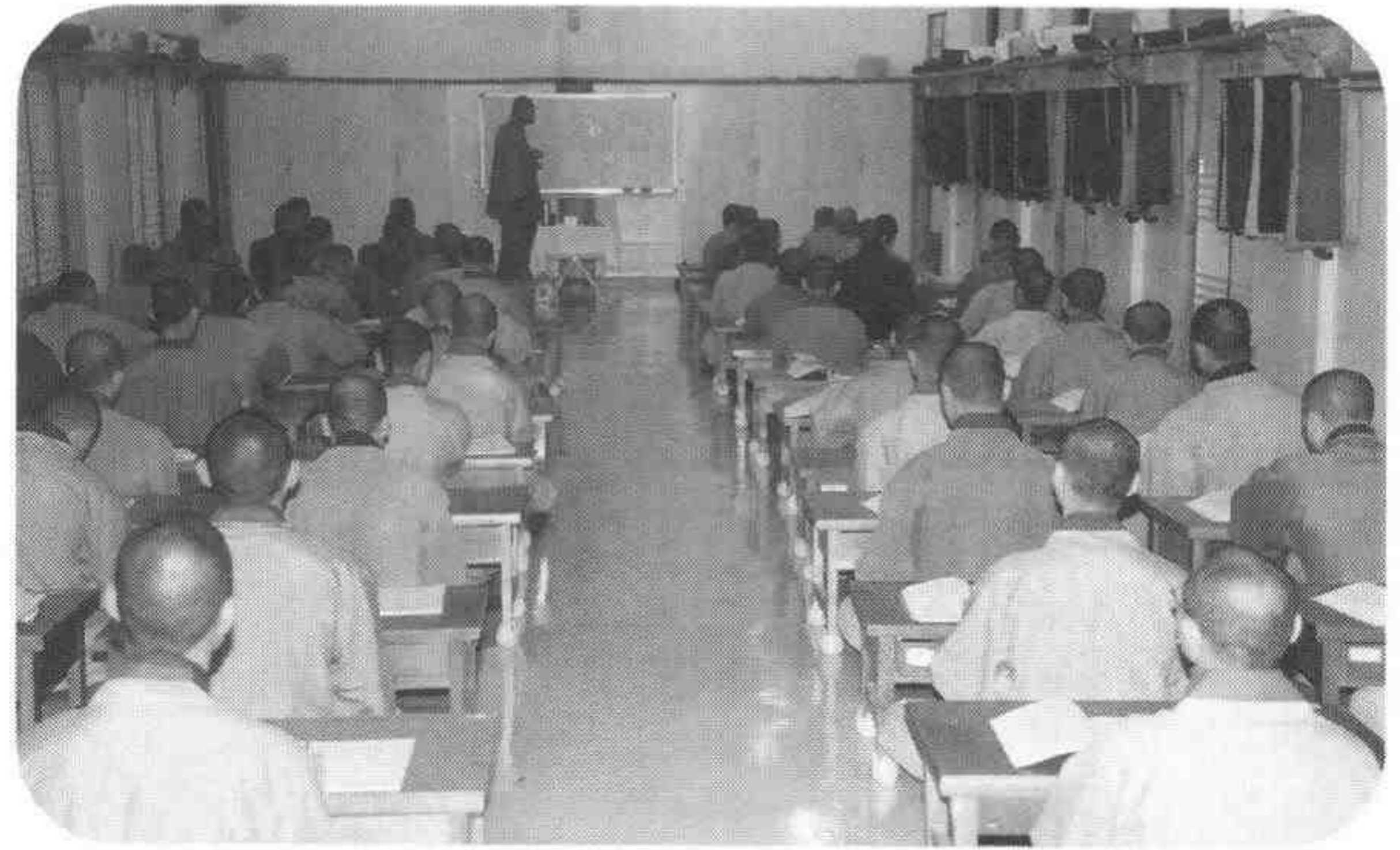
어디에서건 송광사 강원에서의 추억을 잊지 마시길...

4월 1일 ~ 11일 중론 특강

정화 스님께서 <중론>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용수보살이 저술하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중관론은
空과 假를 파하고 다시 중도에 집착하는 견해도 파한
無所得의 중도이다.」

강의시간 내내 선 채로 칠판을 하나 가득. 열성적인
강의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4월 5일 한식 선사다례

한식을 맞이하여 풍암영각에서 선사다례가 있었습니
다. 승보종찰로서의 가풍을 일으키신 16국사를 비롯
하여, 묵묵히 산중을 지키시던 선사(先師)들에 이르기
까지 도량에 가득 배어 있는 어른들의 자취를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스님들도 투표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날, 스
님들도 모처럼 마을에 내려가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투표했습니다.



4월 15일 ~ 28일 중국어 특강

점심공양을 마친 자유시간. 밀려오는 졸음을 참으며

“추 츠 짜엔 미엔(初次見面) - 처음 뵙겠습니다.”

대만으로 돌아가기 전, 윤욱 스님의 마지막 강의였습
니다.





4월 18일 버섯밭 울력

“소고기 반찬 안 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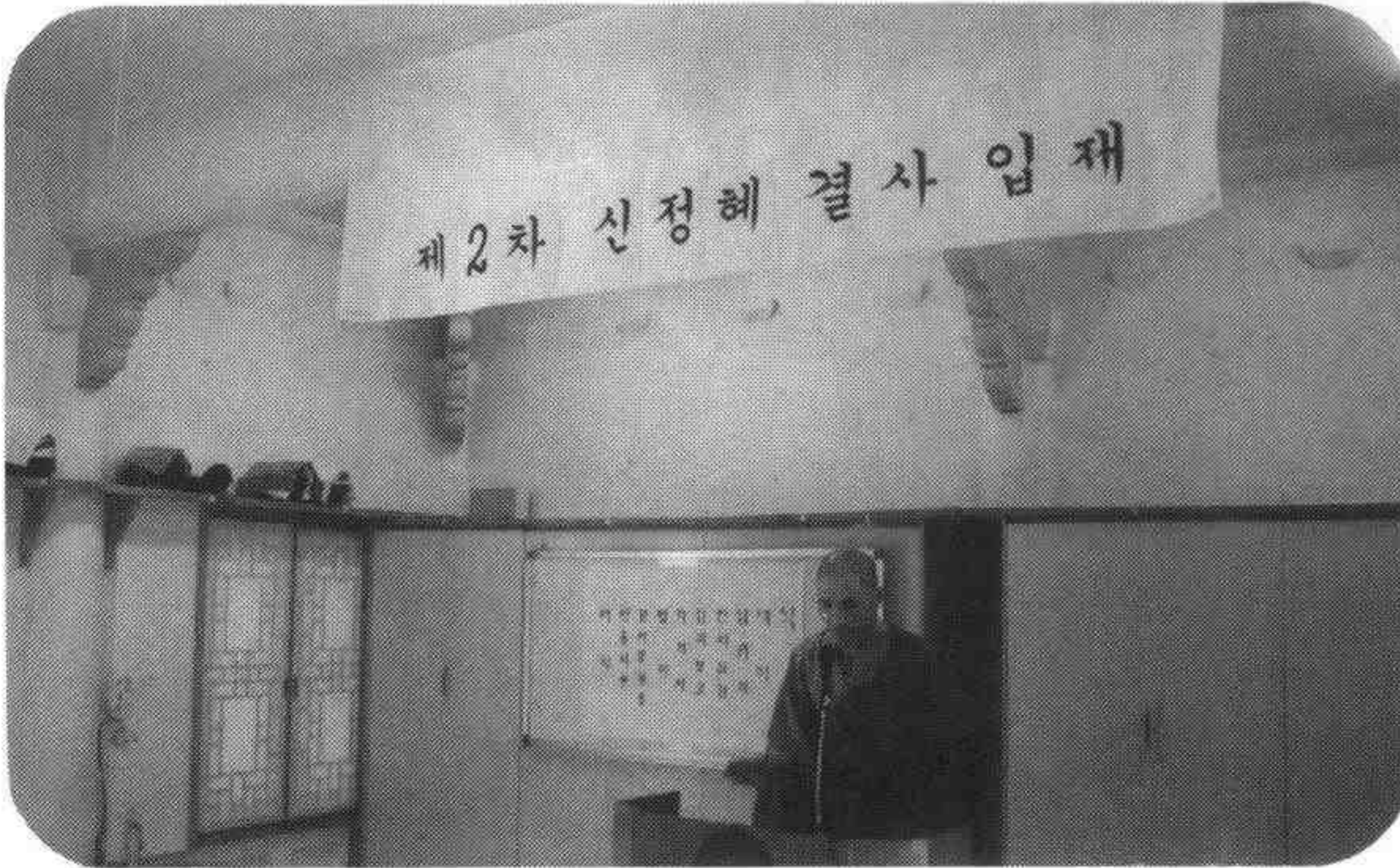
겨우내 돌보는 사람 없이 쓰러졌던 버섯밭을 손질했습니다. 여름 동안 스님들의 별미로 찬상에 오를 맛있는 표고버섯.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5월 2일 봄산철 원족 산행

790회 보조국사 종재를 마치고, 남해 금산 보리암으로 원족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눈 앞에 환하게 펼쳐진 바다와 조화를 이룬 바위산의 절경. 과연 제일 관음도량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해 화방사에도 들러 참배하고 왔습니다.



5월 18일 신정혜결사 입재식

하안거 결제일.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정신을 잇고자 하는 신정혜결사의 입재식이 큰방에서 있습니다. 불기 2541년에 시작한 첫 번째 ‘신정혜결사’를 마무리하고, 현실감각에 맞게 새로운 실천덕목들을 제정하여 두 번째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결사가 무사히 회향하기를...



6월 12일 탄성 스님 다비식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셨던 탄성 스님의 다비식이 범주사에서 있었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대교반, 사교반 스님들이 참석하여 스님의 가시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6월 20일 발치기 운력

태양이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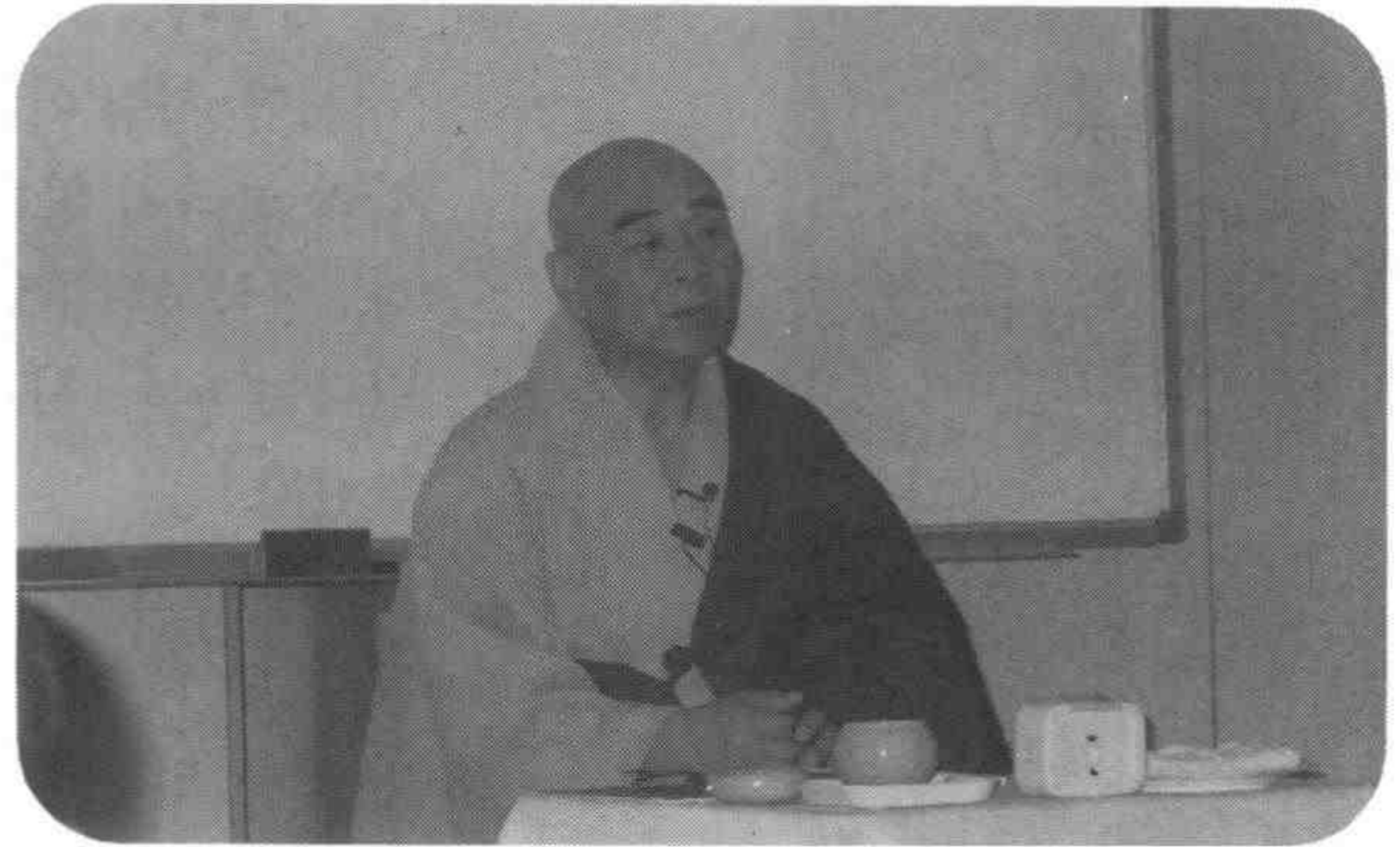
슬그머니 큰방 한 가운데까지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정혜사, 해청당, 법성료 앞에 길게 발을 드리웠습니다.

발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수행의 땀방울을 식히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7월 7일 ~ 7월 10일 도덕경 특강

혜거 스님께서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노자와 21세기' 이후로 관심이 높아진 노자의 사상을 불교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12일 부도전 취정루 상량식

방장 스님, 율주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 어른 스님들과 강원, 선원, 율원의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부도전(율원) 취정루 상량식을 거행했습니다. '삼취정계'에서 이름을 따온 '취정루'는 앞으로 율원 스님들의 도서관 및 방사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7월 17일 강원연합 공개학술토론회

직지사 만덕전에서 '21세기의 간화선 수행'이란 주제로 강원연합 학술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간화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연 따라 ...

일조(日照) / 치문

나한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실은 아주 자주 묻는다) '러시아 사람'이란 대답을 들어서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국사람들도, 그리고 드물게 만나는 외국 사람들조차 모두 다 놀란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가끔 그렇다. 과연 왜 러시아 사람이 부모님의 집을 멀리 떠나 산사에서 수많은 한국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냐고? 이렇게 내가 자기 자신에게 때때로 물어보곤 한다.

한국에 왔을 땐 이 나라에 가야 할 목적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뿐인줄 알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확신이 점점 사라졌다.

그 때는 너무 어려웠다.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1년 전에 나는 나의 생애 중 가장 어려운 일에 부딪쳤다. 내 생각에는 그것의 이유가 무엇보다도 '문화차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사람들 끼리의 사이가 너무 가깝다.(특히 강당 생활에서는!)

또 다른 예는 여기에서 전통과 습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따

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로 말해서 서양사람들은(그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예외가 아니다) 안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일을 하기가 답답해서 하기가 참 어렵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내가 한국에 왔는데 하루하루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없어진 목적대신 이와 같은 대답을 찾았다.

“결심하려고 힘쓰는 것은 환영일 뿐이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허깨비와 다름이 없다.”

사실 나는 업(業)의 길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다. 혹은 고인(古人)의 말로 '수인연(隨因緣, 인연 따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어려움에 대해 걱정할 만한 것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웃는다.

照顧脚下

원교(圓皎) / 사집

하나 :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비 온 뒤 수풀 속에서 두 귀를 쫓긋 세우고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달팽이의 모습.

종무소 담장 밑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접시꽃의 향기.

떨어진 꽃잎이 아쉬운 듯 쪼그리고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는 도반스님의 눈길.

마른 가뭄 뒤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너무나 좋아라 하는 스님의 천진함.

예불 전 사바세계 못 중생들을

제도키 위해 울려 퍼지는 범종의 울림.

예불 끝에 함께 절하면서 바라본 옆 스님 이마의 송글송글 맺혀 있는 땀방울.

늦깎이지만 노익장을 발휘해 두 배 세 배 노력하는 우리 반 한주 스님들의 힘찬 간경 소리.

아무도 모르게 발우 수건을 깨끗이 빨아놓는 우렁이각시 같은 스님의 마음.

간경시간, 미리 큰방에 들어와 도반 스님들의 경상을 내어다 놓는 따뜻한 스님의 손길.

강의를 마치고 한 모금의 차를 달게 마시는 강사스님의 입가의 미소.

가끔 지대방에 내려와 투덜거리는 삼일암시자의 모습에서 진하게 배어 나오는 어른스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둘 : 고맙고 고마운 일들도 많습니다.

작은 보시금을 쪼개 남을 돕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스님들.

몸이 아파 누워 있는 스님을 위해 미음을 끓이러 가는 가벼운 발걸음.

축구 울력을 하다 넘어진 도반에게 거친 숨결로 뛰어와 부축하는 건강한 어깨.

힘들고 굳은 일을 묵묵히 말없이 해나가는 행자님들.

학인 스님들의 운동부족을 염려하셔서 하루가 멀다하고 풀 뽑기 울력을 시키시는 너무나도 자상하

신 우리의 방장스님.

셋 :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도반 스님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는 순간.

오랜 동안 정들어 살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도량으로 옮겨가는 스님의 아리한 뒷모습.

몸이 약해서 또는 본의 아니게 다쳐서 함께 생활하기를 힘들어하는 스님의 모습.

간경 시간, 꾸벅꾸벅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놀라는 스님의 덩그런 눈망울.

머피의 법칙인가? 잘하려고 애쓰지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스님의 뒷모습.

예불 시간 졸다가 경전을 놓치고 화들짝 놀라 멧쩍어 두리번거리는 스님의 황당한 모습.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서장을 배우고 있는 나는 이런 모습들이 환(幻)이며 또한 공(空)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변천하는 모든 법은 덧없어 모든 것은 났다가 사라지거나 나고 없어지는 법 없다면 그때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喝 我之漏逗不少

악, 나의 허물이 적지 않구나

간병실에서

도현(道現) / 사집

몸이 무겁다.
땀이라도 흠뻑 내고 나면 좀 나으련만
온 몸에 가득 찬 열(熱) 기운은
빠질 줄을 모르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바람이 너무도 시리다.
근육들은 모두 풀어져
찢기는 듯 아프고
넋브러진 몸뚱이는 저 깊은
수면의 늪으로 가라앉는다.

혼자서 사는 사람에게 아플 때
처럼 서러울 때가 없다. 설마 이
정도 열(熱)가지고 별 이상이야
있을까마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시
간이다. 부질없이 누구를 탓하려
해도 모두가 내가 꾸민 일인 것
을... ‘빨리 일어나야 할텐데’ 하
면서 애써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쉽지가 않다.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벗어
놓고 간 수련복 80여벌을 빨래한
다고 혼자서 설치고, 다음날 무리
해서 산행을 한 탓인지 저녁부터
오르기 시작한 열이 내릴 줄을 모
른다.

뭐가 그리 잘났는지 그 와중에
서도 아이들을 생각하고는 미소짓
는 나를 본다.

‘이번 수련회가 예전보다 많이
힘들었다는데 혹시나 나처럼 집에
돌아가서 앓는 아이는 없을까?’

이런 저런 망상을 피우고 있는
사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입승입니다.”

아직도 무거운 몸을 애써 일으
켰다.

“좀 어떠세요. 약은 먹었습니까?
감기에는 약이 없다던데... 다만
그 뒤에 따라올 합병증을 예방하

기 위해 감기약을 먹는 것이랍니
다. 스님은 왜 아프다고 생각하세
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군요. 스님이 고생
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스님이 ‘나
고생했소’ 하는 생각을 내서 남들
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그 마음 잘 관조
(觀照)해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날카로운 지적이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
을까? 어쩌면 입승 스님께서 감기
끝에 따라올 합병증을 막기 위해
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
일지도 모르겠다.

“도현 스님, 계세요?”

이번엔 대교반장 스님이 찾아오
셨다. 전에 편집실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느
껴지는 분이다. 몸을 일으켜 고쳐
앉으려니 괜찮으니까 누으란다.
그리곤 두 손을 꼭 잡으시며,

“고생 많지요. 공양은 했어요. 아
프더라도 공양은 거르면 안 되요.
아무 걱정말고 한 이삼일 푹 쉬세
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너무도 자상하신 분이다. 입승
스님이 대중의 아버지라면 대교반
장 스님은 어머니쯤 되겠지. 따듯
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몸이 많이
가벼워 졌다.

도대체 몇 시나 되었을까?
자다가 열에 치어 일어났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다.

‘아무도 없어요?’ 소리쳐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다.
칠혹 같은 어둠이 너무도 싫다.

때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반 스님께 물수건을 부탁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스님은 차가
운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감싼다.

“해열제라도 갖다 줄까요?”

“예.”

미안하긴 하지만 이왕 신세 질
바엔 모든 것을 맡겨버리자. 한참
뒤에야 스님이 돌아왔다. 찻느라
애를 먹은 모양이다.

“스님, 고마워요!”

“괜찮으니까 얼른 낫기나 하세
요.”

덕분에 요란스러운 밤을 무사히
넘겼다. 열도 떨어지고, 따뜻한 도
반 스님의 정성 때문인지 기분이
한결 좋았다. 예불시간엔 108배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은 무리였나 보다.

공양시간엔 밥이 어디로 넘어가
는 지도 모르겠고, 수업시간도 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지나
갔는지 모르겠다. 지대방 한 구석
에 웅크리고 누워 있자니 도반 스
님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많이 아프냐고 걱정하며 팔다리
를 주물러 주는 스님도 웬지 부담
이 되고, 조그만 지대방에 자리 차
지하고 누워있다고 눈짓하는 것
같아 편하지가 않다. 결국은 지대
방에 메모 한 장 남겨놓고 다시
간병실로 옮겨왔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럴 때 아플 건
또 뭐람!’

혼자서 걱정하고 있는 사이 편
집장 스님이 오셨다.

“도현이 아파? 자, 초콜렛. 이거
먹고 빨리 나아야 돼.”

친형처럼 돌봐주시는 분이다. 그
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장난기 뚝뚝 흐르는 곰돌이 편집
장님. 내가 앓아 누운 덕에 편집실
도 문 닫았다며 빨리 나오라고 으
른다.

부끄럼으로 물든 엉덩이에 어린
이 범회 선생님이 놓아주는 주사
를 맞으며,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
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반
들 덕에 이틀만에 훌훌 털고 일어
난 지금,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끝으로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
의 몇 구절을 떠올리며 간병실에
서의 기록을 마친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이래서 부처님께서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나들이

능원(能圓) / 사고

이 글이 유포되기도 전에 나는 무수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나는 소신껏 밀고 나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쓰는 이 글은 전체 강원의 1급 비밀일 뿐만 아니라 송광사 강원의 숨은 면을 밝히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무척 궁금하지 않은가?

후후후후후.

예로부터 송광사 강원은 다른 강원에 비해 좀 답답한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특히 결제 때는 외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강주 스님 뿐만 아니라 방장 스님이라도 막지 못한다.

후후후후후.

바로 예비군 훈련. 강원생들 중 노장파(여기서 노장이라는 것은 예비군이 끝났음을 뜻함. 후후, 이 자세한 설명 역시 친절하다.)들 마저도 ‘혹시나 대리교육 받을 만한 것이 없을까’하고 다들 고대하고 있다.

때론 방학(강원에도 방학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는 스님들께 문의바람.)동안에 훈련이 나와서 무척 어이없게 만들기도 한다.

이 때, 일부 스님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훈련을 연기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모를 리가 없으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나는 반결제를 이틀 지난 시점에 동원훈련이 나왔다. 설

레는 마음은 강원을 다녀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더구나 나는 처음으로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석달 앞서서 동원훈련을 받은 스님에게 코치를 받았다. 역시 환상이었다.

훈련은 거의 안하고 노는 것이 일과이고, 저녁 내내 TV(송광사엔 TV가 없다.)를 보는 데다가 피엑스에서 맛있는 것(알아서 상상하기 바람)을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환상적이군.’

그래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6시에 순천시청에서 동원차량을 타고 광주에 있는 삼도훈련장으로 갔다.

앗!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소총을 지급받고 내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보고만 것이다. TV가 없는 내무실을....

얼마나 기대를 했었던가. ‘까블면 쪼꼬바로 맞는다. 잉!’ 과 ‘전지연의 허리춤’ 광고를 보고 싶었는데 후후후.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입소식전까지 늘어지게 자고 나서 짬밥을 먹으러 갔다.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란 말인가? 오징어가 잠깐 헤엄친 덮밥, 소가 한쪽 다리를 담그고 지나간 듯한 국에서 계란 노른자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나마도 배식을 해서 엄청나게 조금 주는 것이었다. ‘너나 다 먹어라.’

오후의 일정인 주·야간 사격이 있었지만 현역 때처럼 ‘얼차려’도

없고 그냥 앉아 있다가 총 5발만 쏘면 끝이었다.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만 지켜달라고 부대장이 사정 사정을 하였다.

‘역시 예비군이군.’

훈련은 별게 아니었지만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샤워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바로 제한급수 때문에 물이 나오질 않았다. 할 수 없이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며 더위를 식히려고 피엑스에 갔더니, 시간을 정해 문을 여는 바람에 460여 명이 한 번에 모여들어 줄을 엄청나게 서야 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3박 4일 동안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나이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미 나의 생각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역시 여자 이야기다. 언제 어떤 여자를 어찌구 저찌구 해서 어떻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사 품격상 밝힐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척 재미있는데...) 마누라가 임신해서 밤이 외롭다(???). 애를 낳았는데 겁나게 귀엽다.

‘아니 벌써 애들을...’

그런데 똥 싸서 냄새가 무척 심하다. 기저귀는 사서 쓰는데 돈이 많이 든다. 너는 기저귀를 사서 쓰느냐? 나는 천으로 빨아서 쓰니까 돈이 절약되더라 등등.

나는 놀랐고 그리고 할말이 없

었다. 대화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군복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금방 들통난다.

게다가 예비군은 훈련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담배를 피며 과거사를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이야기 할만한 것이 없었다. 나는 엄청 심심했다.

예비군 전우들의 애정비사를 들으며 심심함을 달랬지만 4일은 나에게 긴 시간이었다.

나의 환상이 여지없이 깨졌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TV만 나왔어도 조금은 덜 심심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곳으로 예비군훈련이 나오면 나는 과감히 주소를 옮길 것이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절집에서 살아왔던 시간이 그리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절집생활은 의외로 세상과 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았고, 나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불일 보조 국사 이래 대대로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를 승보종찰이라 부른다. 면면히 사자상승(師資相承)되었던 16국사의 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혜결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 선양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호에서는 제4세 진명국사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획연재

4世 祖師
진명(眞明)국사



以庚申十月下山 入院
上堂 公 入門殿閣凌空
攀目溪山似畫 人云倦鳥
知還 天遣老龍憇臥 諸仁
者 龍旣臥矣 慈雲何在
良久云 行到水窮處 坐看
雲起時 四方學者雲臻

(臥龍山慈雲寺贈謚眞明國
師碑銘中)

庚申年(1260) 10월에 스님은 법상에 올라 이르시길,
“문에 드는 전각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계곡과 산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도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신선의 새(仙鳥)가 돌아올 줄 안다’ 하거늘 하늘이 보내신 늙은 용은 비스듬이 누웠으니 여러 어진 이여, 이미 누웠거니와 慈雲은 어느 곳에 있는고?”
한동안 良久하고 이르기를,
“물길이 다한 곳에 가서 이르면 앉아서 구름 이는 때를 보리라.”
하시니 사방에서 스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와룡산 자운사 진명국사 비명 중에서)

◆◆◆◆

스님의 휘는 혼원(混元)이니 명종 21년(1191년)에 황해도 수안군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경시서승(京市署丞)을 지낸 이사덕(李師德)이고 어머니는 김씨로서 합문기후(閤門祇候) 김열보(金閱甫)의 따님이다. 일찍이 어머니가 꿈에 감로수를 마시고 스님을 잉태하였는데 생후에 매우 영특하여 웃어른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어려서 또래의 동무들과 소꿉놀이를 할 적에는 늘 돌을 모아 탑을 쌓고 부처님께 불공드리는 시늉을 하므로 이를 본 부모와 웃어른들은 이 아이가 아마도 속생(宿生)에 불법을 닦은 소치일 것이라고 여겼으며 필시 진세(塵世)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들 짐작했다. 이러한 웃어른들의 예견은 꼭 맞아서 스님의 나이 13세가 되자 부모에게 나아가 여쭙기를,
“소자는 세속에 뜻이 없사오니 외숙(外叔)을 따라 불도를 닦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님의 부모는 아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이미 뜻을 정해 놓은 바 있으므로 별로 놀라거나 유예함이 없이 곧 허락을 내리고 출가위승(出家爲僧)케 하여 외숙인 종헌(宗軒)선사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그 해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며, 다시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삼장(三藏)을 배우도록 했다.

스님의 총명함은 이때부터 그 진가를 발휘하여 조사어록이나 경전을 막론하고 한번 눈으로 스치기만 하면 곧 암송하였고 또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라 스님의 공부는 일취월장하여 여러 동학(同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동학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내·외전을 널리 통달한 스님은 약관의 나이에 사굴산(閤崛山) 총림의 수석(首席)이 되었다.

그로부터 수년을 오로지 참선으로 세월을 잊다가 주위의 권고로 선과(禪科)에 응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상상과(上上科)에 뽑

혔지만 스님은 한결같이 뜻을 산림에 두고 명리의 길을 밟지 않기를 스스로 맹서하였다.

그리하여 석장을 벗하여 남으로 심사방도(尋師訪道)의 길을 떠나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더니, 드디어 쌍봉사의 청우(靑牛)선사를 배알하고는 석장을 높이 걸고 참학(參學)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3년여를 안거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용맹정진하여 선(禪)의 깊은 이치를 얻었다.

그로부터는 온갖 것에 얽매임이 없는 탕탕무애(蕩蕩無碍)한 일개 한도인(一箇閑道人)이 되어 다시 운수(雲水)의 길을 떠나 마침내 조계산의 무의자(無衣子)를 뵈게 된다.

보조국사의 대를 이어 조계산 제 2대 법주로 있던 무의자 스님은 혼원(混元) 스님을 한번 만나 보고는 이내 법기(法器)임을 간파하시고 매우 애중히 여기시어 자신의 제자인 청진(淸眞)에게로 스님을 보내면서 잘 지도하기를 당

부하였다. 자신은 청진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죽하게 여기시고 청진의 법을 잇도록 배려한 것이다.

청진도 무의자 스님 못지 않게 훌륭한 본분종사(本分宗師)이므로 스승의 명을 따라 혼원 스님을 슬하에 거두고 정진에 전념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 조계선(曹溪禪)의 골수(骨髓)를 모두 얻기에 이르니, 이로부터 고인의 공안에 막힘이 없이 모두 통달하여 불법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현관(玄關)에 노닐며 무애변재(無碍

난가사를 드리고 법문을 청하니 스님은 마치 장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변재로 도를 논하고 진리를 설파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매양 구름이 허리를 휘감은 높고 깊은 청산에 뜻이 있었으므로 여러 번 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고종 39년 임자(1252) 8월에 청진국사는 조계산의 모든 일을 스님에게 부촉하고 입적하시니 나라에서는 스님을 조계산의 第四世 법주로 임명하고 중사(中使)를 시켜 조계산으로 모시고 가도록

고관을 시켜 모시고 가도록 하였으나 스님은 굳이 사양하고 서쪽으로 행하여 자운사(慈雲寺)에 이르렀다.

이 때 오랫동안 가물었던 날씨가 밤에 이르자 홀연히 큰비가 내리니 조정과 백성들은 모두들 경탄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기미년(1259) 5월11일에 나라에서 스님을 왕사(王師)로 책봉하고 임금께서 친히 스승을 모시는 예(禮)를 행하려 했는데 임금이 갑자기 자리에 눕자마자 그대로 붕어(崩御)하고야 말았다.

고종의 대를 이어 등극한 원종

曹溪禪의 골수를 얻어 고인의 공안에 모두 통달하니,
불법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玄關에 노닐며
無碍辯才로서 여러 사람을 교화하시다,
三中大師와 大禪師의 칭호를 받고 청진국사의 법을 잇다

辯才)로서 여러 사람을 깨우쳐 주는 힘을 얻었다.

이때부터 정혜사와 선원사 등에서 주석하시며 법석을 펴 대중을 교화하시니 삼중대사(三中大師)라는 호와 대선사(大禪師)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고종 33년 병자(丙子)년에는 진양공(晉陽公, 崔瑀)이 스스로 소문(疎文)을 지어 청진국사의 법을 이은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며칠 뒤, 임금께서 행차하여 금

하니 그 해 겨울 12월에 수선사(修禪社)에 도착하였다.

이로부터 보조국사의 선풍(禪風)은 다시 크게 떨치니 사방에서 학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병진년 가을에 스님은 선원사 법주의 소임을 단공(旦公)에게 맡기고 한가로이 운수에 묻힐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스님의 도덕을 사모하여 따르는 마음은 조금도 쇠하지 않아서 무오(1258)에 단속사(斷俗寺) 주지에 임명하고

은 부왕의 뜻을 이어 스님을 공경하기를 더하였다.

그리하여 자운사에 머물도록 윤택하니 스님은 번거롭다하여 재삼 사양하였다.

“짐(朕)이 스님을 만류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모시면서 친히 법음(法陰)을 입고져 함인데 스님은 짐을 버리고저 하니 끝내 스님 뜻을 어기지 않겠으나 어디를 가서 계시든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 주시오.”

임금의 청은 간절하였다. 임금

은 스님을 궁중에 친히 모시고 손수 조석공계를 올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스님은 곧 물러나와 와룡산 자운사로 돌아왔다.

경신년(1260) 10월에 상당법문(註: 본문의 머리글)을 하시니 사방에서 학자들이 운집하여 방사(房舍)가 비좁았다. 여기에서 12년을 한결같이 머물면서 납자를 기르고 사부대중을 깨우쳐 주었으며 낡은 가람을 중수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이 절의 개산조(開山祖)인 경공(景空)대사가 다시 온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

원종 12년(1271) 12월 초하루에 스님은 방장실에서 한 계송을 읊되,

今朝臘月一 看看
三十日到來
正念無忘失
오늘 아침은 선달 초하루라
살펴보고 살펴보라
마지막 날이 이르러도
정념은 망실함이 없나니.

초이렛날이 되자 미질(微疾)을 보이더니 초열흘 새벽에 시자가 문안을 드리니 불안(佛眼)선사가 읊은 계송을 들어 이르시기를,

鳥從空裏飛 入向心中住
새가 허공 속에서 날아와
맘속을 향해 들어와 머문다.

이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얘기

를 나누다가 임금께 올리는 글을 쓰고, 아울러 법을 부촉하는 인신(印信)을 봉하여 시자에게 맡기었다.

신시(申時)에 옷을 갈아입고 가사를 수한 뒤 선상(禪床)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은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대열반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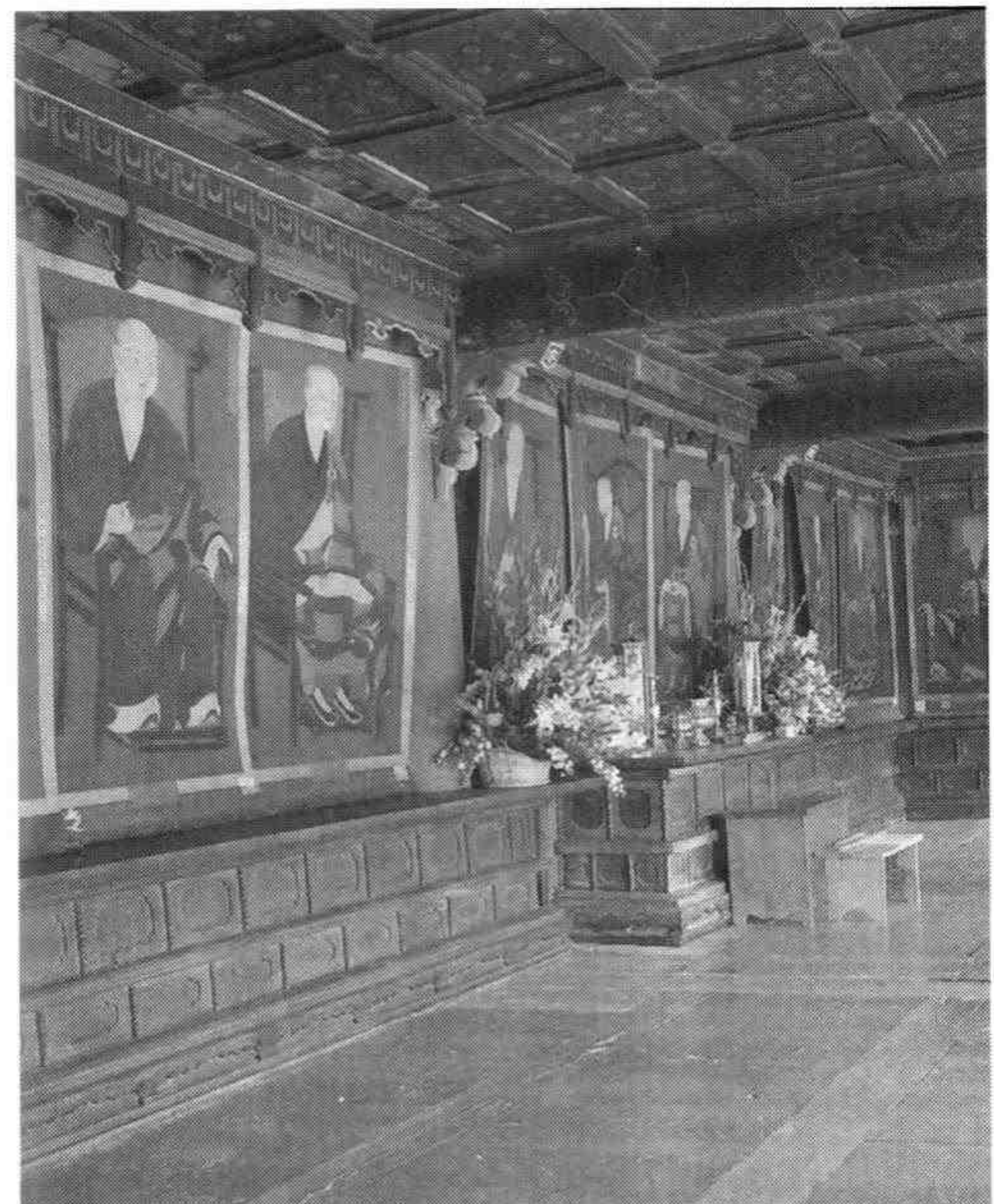
7일 동안을 그대로 모셔 두었는데 안색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고 팔 다리를 폈다 오므리는 것도 여전하였으며 이향(異香)이 방안에 가득하였다.

16일에 절 뒤편 동구에서 다비를 모신 뒤 문인들은 유서와 아울러 인신(印信)을 임금에게 올렸다.

임금은 크게 애통하여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였으며 국사로 봉하여 시호를 진명(眞明)이라 하고 탑호는 보광(寶光)이라 하였다.

스님의 세수(世壽)는 80이요 법랍은 68하(夏)였다.

이듬해인 임신년(1272) 2월17일에 절의 서쪽 양지 바른 곳에 부도를 세우고 비를 세웠으나 현존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스님의 제자로는 스님의 대를 이어 조계산 第五世 법주가 된 자진 원오 국사(慈眞圓悟國師)와 자정 일인(慈靜 一印), 자각 도연(慈覺 道然), 탁영(卓英), 경지(鏡智) 스님 등이 있다.



▲ 국사전에 모셔진 진명국사 진영(眞影)

돌이켜 보는 삶이란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 투성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밤의 침묵을 깨는
 새벽 3시의 죽비 일성(一聲)에
 나는 오늘도 다짐한다.

불신과 가난, 그 허무의 늪을 헤쳐나오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던 지난 시절, 언제나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슴이 쓰릴 때면, 그 쓰린 작은 가슴을 쓸어 내리며 많은 날들을 투명한 작은 잔에 담아 비워버렸다. 황갈색 액체를 땅바닥에 쏟으며 거짓의 삶을 살진 않겠다고 다짐하던 어제의 자신은 간 데 없고, 어느 낯선 스님 하나 서 있다.

회상(回想)

한때는 허무를 쫓아 그 방향조차 알 수 없이 헤매고, 삶을 보장받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존재마저 잃어버린 채 남의 삶을 살았었다.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순간의 유희였건만 당시는 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양 집착했었는지...

지친 육신을 이끌고 삶의 위태로운 곡예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서점에서 육조단경을 보게 되었고 웬지 모르게 나를 사로잡았다. 책을 사들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왜 그리 가벼웠던지, 밤새워 읽어버리고 나니 어느덧 마음은 알 수 없는 환희로 차오르는 것이 아닌가?

정화(正華) / 치문

그리고 얼마 후, 8년 전에 출가 해버린 대학 때의 친구 스님을 조계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스님의 편안한 모습에 나도 출가의 뜻을 내비쳤다. 나의 지쳐있는 모습 속에도 아직은 작은 힘이 남아 있었는지, 그 스님은 '자기 자신을 심연 깊숙한 골짜기까지 버려 두다 보면 새로운 힘이 솟으리니 그 때 출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여기 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 버렸을 때의 그 홀가분함이란...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세속에서의 생활이란 무엇이든지 추구하고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순 덩어리지만, 승가의 삶이란 언제나 자신을 비워가는 삶이라 아름답게 보였다.

처음 머리를 깎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 그때에 품었던 다짐들은 강원생활에 많은 힘이 되었다. 처음의 행자생활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다. 매일 매일 짐을 챙겨두고 '내일은, 내일은...' 하면서 지내던 시간들. 수많은 출가 희망자가 오고 가면서 그 인연의 얽힘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했다.

많은 복이 있어야 계를 받을 수 있다는 스님들의 말이 그 땐 빈말로 들리던 것이, 시간이 지난 지금이야 그 의미들을 이해 할 것도 같다.

힘겨웠던 행자생활을 마치고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다는 기분도 잠시, 곧바로 강원으로의 방부! 한사람의 여법(如法)한 스님이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노력과 어려운 과정들이 널려 있음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던 것 같다.

그러한 일련의 바쁜 나날 속에서도 봄 햇살의 따스한 온기를 받으면서 자라는 자연의 황홀함과 경이감,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연초록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나는 과거의 묵은 허물들을 벗을 수 있었다.

이제 지난 시절의 가슴앓이는 어느덧 사라지고 충혈 되었던 눈빛도,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가슴아파 했던 온갖 것들에 대한 망상들도, 지금은 사라져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사물을 볼 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몸이 많이 깨끗해 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잡히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 서서히 접근해 보기 시작했다. 사미계 수계산림을 하는 동안, 나는 그리운 아버지를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

자식이 출가했는지도 모른 채,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못난 자식을 그렇게도 많이 찾으셨다는 뒷말에 나는 가슴에 당신을 묻으며 아파해야만 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은 간데 없이 언제나 자식을 위한 한 생각으로 살아오신 가엾은 분. 그 기대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은사스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그 불효를 다하겠느냐”며 경책(警策)하셨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그들이 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겠다던 약속을 오늘도 잊지 않은 채 그 회향의 날을 위해 묵묵히 정진 할 따름이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죽비 일성(一聲)으로 시작되는 하루, ‘꿈속의 나’와 ‘깨으름을 피우는 나’, 어느 것이 참 나인지 끊이지 않는 의문으로 여명은 밝아 오고 있다.

옛 어른들이 하신 “출가자는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는 말씀을 다시 한번 출가의 본분 정신으로 되새겨 본다.

오늘도 삼경이후 지장전에 맺히는 땀방울들은 마를 날이 없다. 세속의 변화무쌍함에 맞서 도도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눈푸른 납자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그들의 무언(無言)의 정진은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이다.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이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베드로 시안, 「그런 길은 없다」

죽음을 딛고, 스님이 되어...

무안(無安) / 치문

나는 ‘스님’이 되고 싶어서 출가를 했다. 모두들 스님이 되고 싶어서라는 말에 조금 의아해 하겠지만 그 ‘스님’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인연, 인과, 윤회, 생사의 문제, 깨달음 등등.

출가하기 전, 나는 산을 좋아해서 자주 등산을 다녔다. 그렇다고해서 설악산이나 한라산 같은 명산을 다니지는 않았고 그저 서울 근교의 산들을 주로 다녔다. 특히 북한산과 도봉산을 좋아했고, 암벽등반도 조금 했었다.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친구와 함께 자유등반 코스로 북한산을 자주 찾았다.

운명의 그 날, 사고가 나려고 그랬는지 무척 힘이 들었다. 암벽에 오른 지 30분 정도, 그만 몸을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 감각을 잃고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산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살려는 운명이었는지 뒤에 따라온 그룹 중에서 간호사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두발로 움직일 수가 있다.

구조대 헬기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안되어 두번째 병원으로 가면서 짧은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다.

광주에서 급히 올라오신 부모님, ‘그래도 안죽기를 다행이다’며 안도의 긴 한숨으로 자식을 위로하시던 그 따스한 가슴들을 잊을 수 없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나는 어지간히 공부도 안했고 말썽도 많이 피웠다. 공부도 그렇게 뛰어나게 잘 하지는 못했고, 광주 근교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 후 정신을 차려서 후회 없을 정도로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도 해보았다. 그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었기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대학진학의 실패로 인해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고, 매일 학원을 가는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면서 허송세월 하는 동안, 그런 나를 조용히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도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삼촌과 함께 공동으로 가게를 열어 다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부모님께선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셨다. 무슨 일이든지 믿고 따라주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하기만 하다.

병원 응급실에서 한참동안 말 없이 내려다보시던 아버님, 계속 우시면서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이게 뭘풀이여.” 하시며 역정을 내시던 어머니. 수술 전 의사선생님의 한 마디.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휠체어 탈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모두 놀란 모습들. 나의 두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당시 나의 몸 상태는 엉망이었다. 척추뼈 두개가 부러졌고 엉덩이뼈는 탈골되었고 신장에도 손상이 갔었다. 수술은 원만히 이루어졌고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한 결과, 나는 내 의지대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 어머님께서는 죽지 않고 이렇게 무사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고 이후 불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퇴원을 해서 요양할 만한 곳을 찾던 중, 아버님께서 스님 한 분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 절에 가서 쉬게 되었다. 그곳에서 공부도 하며 생활하는 동안 '스님이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조금씩 들었다.

그곳 주지 스님께서도 계속 나한테 출가를 권유하셨다. 결국엔 그 권유에 못이겨 출가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곳에 계시는 스님에게 감사한다. 스님이 되려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집에 가서 말씀 드렸더니, 처음에는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며 꾸중하시던 부모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너그러워지셨다. 매일 약주를 드시고 와서 나무라시던 아버님께서 어느날 조용히 나를 불러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스님이 되지 말고 매사에 열심히 살라'고 하시면서 출가를 허락 하셨다.

출가를 허락 받고 부터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진정한 출가란 무엇인지? 출가만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인지?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을 떨쳐 버릴 수 있을까? 등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들 무렵, 어느 날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네 이놈! 출가 한다는 놈의 행동 거지가 이게 뭐냐" 하시며 많은 꾸지람을 하셨다. 어머님께서도 속이 상하셨는지 "저놈 저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저는 편하게 놀러나 다녀. 나쁜놈!" 하시면서 역정을 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너 이 자리에서 당장 선택해. 여기 사진보고 내일 선을 보든가 아니면 절에 가든가." 나는 조금은 당황하였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저 당장 내일 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한 입가지고 두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나서게 되었다. 아버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떠나는 아들의 모습조차 내다보지 않으셨다. 어머니께서는 '나 갑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아들을 어찌 생각하셨을까?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 같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너무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다. 어떤 인연으로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스님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다.

이번 방학에는 부처님에게 예경 하듯이 나를 낳아주시고 스님이 되게끔 해주신 부모님께 꼭 삼배해야지!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열심히 정진하는 좋은 스님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 은사 스님! 제 범명 바꾸어 주세요.

무안에서 태어났다고 무안이라니, 이것 참 무안하구만!

농담입니다.

수심팔훈(修心八訓)

적문(寂門) / 치문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글들을 가슴에 한두 가지씩은 지니고 살아간다.

나도 역시 그런 글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수행의 기본을 점검하는데 바른 지침이 되는 글로써, 티벳의 훌륭한 스승들 중 한 분인 ‘랑시땅빠’가 마음 바꾸기의 수행을 여덟가지 계송으로 집약시켜 놓은 글이다. 사실 이 글을 접한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마음뿐이고 행(行)으로 옮기는 데는 쉽지가 않다.

출가하기 전에는 너무 외적인 일들에 마음이 쏠려 있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으며, 출가해서는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는 무상계와 이 계송으로 아침 도량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我破他爲’의 마음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他破我爲의 마음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다.

이 계송의 한 구절을 보고 ‘체까와’라는 스승은 ‘랑시땅빠’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으며, 12년이란 세월을 갖은 시련을 겪으며 마음 바꾸기 수행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관심을 가질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옛사람이 말했는데 아직도 나에게서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일까?

모든 수행이 그렇듯 이 계송의 가르침 또한 행으로 옮겼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스승은 말씀하신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 그리고 어머니 같은 모든 중생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숨결이 충만하길 바라며....

■ 번역본은 북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정진하고 계신 청전 스님의 글이 자세하고 또 원본에 충실한 것 같아서 청전 스님의 번역본을 실었음을 밝혀둔다.

སྒོ་སྤྱོད་ཚེག་བརྒྱུད་མ།

修心八訓

༄༅། |བདག་ནི་སེམས་ཅན་ཐམས་ཅད་ལ།

ཡིད་བཞིན་ནོར་བུ་ལས་ལྷན་པའི།

དོན་མཚོག་སྤྱོད་པའི་བསྐྱེད་པ་ཡིས།

དྲུག་དྲུ་གཅིས་པར་འཛིན་པར་ཤོག།

གང་དུ་སྤྱད་པ་འཕྲོགས་པའི་ཚེ།

བདག་ཉིད་ཀྱི་ལས་དམན་བཟླ་ཞིང།

གཞན་ལ་བསྐྱེད་པ་ཐོབ་པ་ཡིས།

མཚོག་དྲུ་གཅིས་པར་འཛིན་པར་ཤོག།

སྤྱོད་ལམ་ཀུན་དུ་རང་རྒྱུད་ལ།

དོན་ཅིང་ཉོན་མོངས་སྤྱེས་མ་ཐོབ།

བདག་གཞན་མ་རུངས་ཕྱིད་པས་ན།

བཅན་ཐབས་གདོང་ནས་བསྐྱོག་པར་ཤོག།

རང་བཞིན་ངན་པའི་སེམས་ཅན་ནི།

སྤྱི་སྤྱོད་དུ་པོས་ནོན་མཚོང་ཚེ།

རིན་ཚེན་གཏེར་དང་འཕྲད་པ་བཞིན།

ཚིང་པར་དཀའ་བའི་གཅིས་འཛིན་ཤོག།

བདག་ལ་གཞན་གྱིས་སྤྱོད་དོག་གིས།

གཤེས་པར་ལོ་སྤོངས་མི་རིགས་པའི།

ཕྱིར་ཁ་རང་གིས་ལེན་པ་དང་།

ཕྱི་ཁ་གཞན་ལ་འབྲུལ་བར་ཤོག།

གང་ལ་བདག་གིས་ཕན་བདགས་པའི།

རི་བཞི་བ་གང་ཞིག་གིས།

ཤིན་དུ་མི་རིགས་གཞོན་ཕྱིད་ནའང་།

བཤེས་གཉེན་དམ་པར་བཟླ་བར་ཤོག།

མདོར་ན་དངོས་དང་བརྒྱུད་པ་ཡིས།

ཕན་བདེ་མ་རྣམས་ཀྱི་ལ་འབྲུལ།

མ་ཡི་བཞོན་དང་སྤྱོད་བསྐྱེད་ཀྱི།

གསང་བས་བདག་ལ་ལེན་པར་ཤོག།

དེ་དག་ཀྱི་ཀྱང་ཚོས་བརྒྱུད་གྱི།

དོག་པའི་དྲི་མས་མ་སྤྱོད་ཤིང་།

ཚོས་ཀྱི་སྤྱོད་མར་གིས་པའི་སྤོངས།

ཞེན་མེད་འཚོང་བ་ལས་སྤོངས་ཤོག།

저의, 여의주보다 더 빼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지극한 행복 이루기 다짐하며
 항상 그들을 소중히 섬기게 하소서
 언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저는 누구보다도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의 변함 없는 마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소중히 섬기게 하소서
 모든 행동에서 제가 한결같기를
 나와 남을 상하게 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자 마자
 바로 보고 분연히 버리도록 하소서
 격렬한 행동으로 물든 중생들
 사악해진 이들을 볼 때에
 마치 귀중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그들을 더욱 소중히 모시게 하소서
 저를 미움과 시기질투로 속이고
 꾸짖고 악하게 대할지라도
 손해는 내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들리게 하소서
 제가 항상 잘 대하고 보살펴 왔고
 큰 기대하였던 사람이
 저에게 비록 심한 해를 끼칠지라도
 저의 무상의 스승으로 보게 하소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기쁨 드릴지니
 그들 모든 중생들의 불행과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내기 기꺼이 떠맡아 안게 하소서
 염욕에 물든 세속팔풍의 감정으로
 모든 이들을 더럽히지 않으며
 드러난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
 애착을 버리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서장(書狀)을 통해 본 대혜선(大慧禪)과 보조국사에 끼친 영향

덕인(德印) / 사집

I. 대혜종고와 보조국사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 도량 송광사에서 서장(書狀)을 통해 대혜종고 스님(1089-1163)을 만나게 되었다. 대혜 스님과 보조 스님은 시대에 대한 자각을 통해 늘 대중의 삶과 함께 했던 앞서간 선지식이다.

대혜 스님은 사상적으로 유(儒)·불(佛)·도(道)가 정립(鼎立)하고 있는 시대에 불교의 선사상(禪思想)을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며, 타락과 세속화 일변으로 흐르고 있는 총림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염려하셨다.

나아가 이미 선(禪)에 흥미를 갖게 된 사대부들과 중국인들의 전통적 유교윤리인 현실위주의 생활바탕에 선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길로써 간화선을 주창하였다.

보조스님은 고려 후반기의 시대적인 혼란과 불교내적인 선교(禪敎)의 대립과 상쟁(相諍) 및 격동기에 정법불교(正法佛敎), 수행불교(修行佛敎)를 재건하기 위한 실천불교운동으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인식하였다.

선교대립의 극심한 상쟁속에서 사상적 통일성을 깊이 느껴 수행과 증오(證悟)로 독창적인 견해를 얻어 독특한 수행이론과 지도체계를 성립하였으며, 정혜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두 분의 가르침이 오늘날 이 땅에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대혜종고 스님의 임제선의 수행방법, 즉 간화선을 지눌이 어떻게 수용하였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간화선(看話禪)과 대혜선사(大慧禪師)

대혜의 간화선은 옛 조사들이 깨닫게 된 기연(機緣, 因緣)인 공안을 참구하는 새로운 선 수행의 방법이다. 공안이란 '공부(公府)의 안독(案牘)' 즉 관공서의 문서라는 뜻으로, 법칙의 조문(條文)을 말한다. 사적(私的)인 감정이 개입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대성을 의미한다.

선문에서는 '불조(佛祖)가 개시(開示)한 불법의 도리(道理)'를 의미하는데, 학인들이 분별의식을 떨쳐 버리고 조사들의 공안을 참구하여 깨달아야 할 문제로 하고 있다.

대혜의 공안선은 그가 16년 간의 귀양생활 중에 완성된 것이며, 여러 사대부들과의 서신들은 모은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가 근본자료가 된다. 대혜는 '答富樞密'에서 공안참구의 방법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로지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 사랑 분별하는 마음, 생(生)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이 모든 걸 일시에 내리누르고 그 내리누른 곳에서 오로

지 화두(話頭)만 살피십시오.

한 승려가 조주 선사에게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으니, 조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무(無)’ 한 글자야말로 수많은 잘못된 앎과 지각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이 무(無)자 화두를 참구(參究) 할 때는 유(有)다 무(無)다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치로써 이해할 수 없고, 의근(意根)으로 사랑 분별할 수 없고, 눈썹을 치뜨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뿌리박지 않아야 하고, 언어를 통해 살림살이를 짓지 말고,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 보이는 곳에서 지레짐작 하지 말고, 문자를 인용해 증거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루 종일의 행(行)·주(住)·좌(坐)·와(臥) 속에서 순간순간 잡아들이고 순간순간 주시(注視)하십시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無)”고 한 이 화두를 일상 생활 속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관찰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볼 것입니다.」

대혜의 공안선은 일체의 분별심, 차별심을 억누르고 그 곳에서 조주의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공안은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도록 하는 절대적인 참선의 방편인 것이며, 이러한 공안 참구로서 무분별하고 근원적인 자기의 본래심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간화선에서의 공안(公案)은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조고(照顧)해 보는 도구(道具)인 것이다.

대혜의 공안선은 주로 조주의 ‘무(無)’자 화두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혜는 송초 이후 사대부들의 참선이 증가됨과 아울러 지나치게 송고문학(頌古文學)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을 개혁하기 위해 공안 본래의 의의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즉 조주의 ‘무’자와 같은 조사들의 공안을 응용하고 조합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심지(心地)를 개발하

도록 궁구한 것이 공안선이다. 대혜는 이처럼 자기의 근원적인心地를 개척하기 위한 공안의 사명을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대의심(大疑心)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대혜서(大慧書)」 ‘答呂郎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오직 한 의심일 뿐이니 화두 위에서 이 한 의심만 타파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타파됩니다.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오직 화두 위로 나아가 극한까지 겨루어 나가십시오.

만약 화두를 포기해 버리고 오히려 따로 문자 상으로 의심을 일으키고, 경전의 가르침에서 의심을 내고, 옛 조사들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나날의 잡다한 번뇌 속에서 의심을 내는 것은 모두가 사마(邪魔)의 무리입니다.

또 화두를 들어 보이는 곳에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헤아리지도 말고, 오직 뜻을 오로지하여 사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사랑하십시오.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늙은 쥐가 소뿔로 들어가면 홀연히 뒤집히면서 꿇어짐을 볼 겁니다.」

대혜의 공안선은 의심이 타파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대오(大悟)의 수단으로 주장된 것이다.

대혜는 당시 단순히 좌선 명상의 정신집중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선(枯木禪)을 목조의 사선(邪禪)이라고 서장 전편에 걸쳐 배척하고 있다.

이를 「대혜서」 ‘답증시랑(答曾侍郎)’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 선문(禪門)에도 일종의 외도(外道)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눈도 밝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은 고슴도치처럼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쉬려고 한다면, 모든 부처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다고 해도 끝내 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할 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연 따라 늘 지니고 다니면서 정

(情)을 잊은 채 묵묵히 비추라고(默照) 하지만, 오나가나 비추라 하고 오나가나 늘 지니라고 하니 오히려 더욱더 답답할 뿐 법을 요달(了達)할 기약이 없습니다.

다분히 조사들의 방편을 잘못 안 탓으로 잘못 가르친 것이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헛되이 살다 죽게 만들 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간섭치 말고 오로지 <이렇게(恁麼)>쉬어라. 쉬게 되면 정념(情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이 상태는 흐리멍덩한 무지 상태가 아니라 또렷또렷하고 분명한(惺惺歷歷)상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쳐 눈을 멀게 만드니, 정말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 이런 작자들을 보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경전이나 조사어록(祖師語錄)의 글귀만을 갖다가 상투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작자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을 신뢰한다면 영원토록 참선공부를 하여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대혜의 묵조비판과 간화선의 주장은 福州 雪峰山에서 진혈청료(眞歇清了:1088-1151)가 어느 한 시기에 주장했던 묵조선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당시 진혈을 따르는 많은 사대부들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대혜가 비판한 묵조선의 사상은 승조(僧肇)의 「조론(肇論)」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 조사선의 역사로 볼 때 전통적인 입장이었다.

달마 벽관(壁觀)의 기본정신인 것이며, 본각적(本覺的)인 돈오선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묵조가 사선(邪禪)이라면 달마나 혜능, 마조나 임제의 선(禪)도 사선(邪禪)이다.

대혜의 비판은 오히려 본각적인 원리에 떨어져 이원적이고 점수적(漸修的)인 고좌(枯坐)에 집착되어 있는 사선(邪禪)에 대한 비판이다.

대혜선사의 이러한 비판적인 사상은 실로 묵조선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다. 대혜 선사가

비판한 것은 형식화되고 고정화되어진 선 풍토에 있었다.

사상적인 면에서도 할안종사(割眼宗師), 체발외도(剃髮外道), 묵조사배(默照邪輩)들이 들끓어 적멸묵조(寂滅默照)에 머물거나 깨달음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도외시하고 공안을 지적(知的) 분석으로 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지(禪智)도 없으면서 방(棒), 할(喝)등을 남용함으로써 그 실천적인 선사상(禪思想)을 형식화하고 고정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대혜선사에게 있어 간화선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선적인 모순들을 타파할 수 있는 도구였다.

범부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망념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중생들에게 인위적인 의단을 발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던 것이다.

대혜는 민(閩) 땅에 갔을 때 수행자들이 『벽암록』에만 매달려 책 속의 언구를 외는 것만으로 공부를 삼는 폐단을 보고 『벽암록』판을 쪼개어 불살라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하거니와, 대혜는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공부인이 바른 자세로 참구토록 하는 데는 조사 공안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임제(臨濟)의 재현(再現)이라고 일컫는 대혜가 「서장」 전편을 통해서 말한 간화선(看話禪), 특히 ‘무(無)’자 화두에 관한 이론은 종래의 참선법이 지닌 여러 가지 병폐들을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처방법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과 보조선(普照禪)

보조국사 지눌은 고려 18대 의종 12년(1158)에 태어나서 8세에 출가하였다. 1182년 25세에 보제사 담선법회에 참석하여 승선에 합격하였으나 이것이 명리(名利)의 길이라 하여 버리고, 개인적인 수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지눌 스님은 이전의 선사들에 비하면 매우 독특한 선사상의 체계를 세워 후학들을 지도하셨다. 그 사

상체계의 골자를 비문을 통해보자.

「문을 열어 세 종류가 있으니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이라 하고,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이라 하고, 경절문(徑截門)이라 한다. 그것에 의해 수행하여 믿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으니 선학(禪學)의 융성함이 근고(近古)에 비할 데 없었다」

라고 밝혀져 있듯이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이 지눌 선 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성적등지문은 현재 선가(禪家)에서는 성성적적(惺寂寂)이라는 표현으로 남아있는 수행문이다.

성적등지문은 돈오점수설(頓悟漸修說)에 의한 실천수행의 방법이거니와 정혜결사문에 의하면 지눌 스님은 영가대사(永嘉大師)의 말씀을 빌려 적적(寂寂)으로 연려(緣慮)를 다스리고 성성(惺惺)으로 혼침을 다스려서 성성과 적적이 아울러야만 바른 선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성적등지문은 인간의 一眞本心(空寂知)을 頓悟한 다음에 定慧(惺寂)를 雙修(等持)해야 한다는 뜻이요, 동시에 그러한 실천수행법이기도 하다.

원돈신해문은 화엄사상을 선에 원용하여 체계화한 수행방법이다.

원돈신해란 성불은 결코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갖추어진 사실임을 단박에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지눌 스님은 3년이나 대장경을 열람하시다 「화엄경」 51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의 ‘여래의 지혜가 중생신(衆生身)중에 갖추어져 있으나 범부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눌 스님에게는 ‘화엄에서의 범부들이 최초로 신입(信入)하는 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눌 스님은 그러한 문제의 해답을 당나라 李通玄(653-729)의 「신화엄론」에서 찾게 되었다.

즉 ‘중생의 自心(분별성)이 곧 부동지불(不動智佛)이라는 신화엄론의 교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깨침을 얻었고, 나아가 그의 선에 새로이 원돈신해문

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원돈신해에 의해서 완전한 깨침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아직도 의로(義路)와 문해(聞解)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지눌 스님은 바로 이 마지막 정견(情見)을 떨쳐버리기 위해 10여 년 간을 고민해 왔다고 한다. 그의 비문에서

「내가 보문사에서부터 10여년이 되었다.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수행하여 헛되이 세월을 보낸 일은 없었지만 아직도 정견(情見)을 버리지 못하여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리어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지리산에서 『大慧普覺禪師語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반연(攀緣)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으며,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날마다 반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찰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만일 홀연히 눈이 열리면 비로소 그것이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

나는 이에 뜻이 계합하여 저절로 물건이 가슴에 걸리지도 않고 원수도 한 자리에 있지 않아 당장에 편하고 즐거워졌다.」

라고 한 바와 같이, 지눌 스님은 수행과정에서 떨칠 수 없었던 마지막의 정견을 「대혜어록(大慧語錄)」에서 해결한 것이다.

그런 뒤에 지눌 스님은 이러한 대혜 스님의 선법을 자신의 수행체계에 접목시켜 경절문을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지눌 스님과 임제선법과의 관계는 그의 삼문(三門)체계 중 마지막 경절문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눌 스님이 간화경절문을 세우면서 그에게 큰 깨침을 제공했던 「대혜보각선사어록」은 곧 임제의 11대 법손이자 양기산파(楊岐山派)의 5세에 해당하는 대혜종고(1088-1163)의 설법집이기 때문이다.

지눌 스님의 이와 같은 선사상과 그 수행법은 그의

직계제자이며 조계산문의 제 2세인 진각국사 혜심(1178-1234)스님에게로 계승된다.

혜심 스님은 줄곧 간화일문(看話一門)을 강조하였고 「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저술하여 ‘無’자공안을 널리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IV. 한국불교와 보조선

한국불교에 끼친 임제선(간화선)의 영향은 보조지눌 스님이 대혜종고를 통해 간화의 기법을 간접적으로 체득한 것이 그 효시요, 그 뒤로 태고보우(太古普愚, 1299-1375), 나옹혜근(懶翁惠勤, 1320-1376)등 고려 후기 한국 선승들의 원나라 유학에 따른 중국 임제선종계열의 스승에게서 직접 전수가 그 다음이다.

시간적 선후를 따지자면 임제선이 한국 선불교에 끼친 영향으로는 간접적이거나 지눌이 효시요, 그 철학적 정당화의 치밀성으로 보아도 지눌 스님의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따를 만한 저작이 없다.

한국 선불교는 회통적 보조선을 그 전통으로 굳혀왔다. 회통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행방법을 동원하여 종파적 독선을 배제한 무애자재한 교화 방법을 말한다.

투쟁이나 논쟁을 지양하고 화해와 관용의 태도로 오직 불국토를 건설하고 자기의 진면목을 발현하여 불성을 현실에 구현하는 불교 본래의 취지가 곧 회통의 본질이다.

지눌은 선교일치(禪教一致)를 큰 강령으로 하여 선종과 교종간의 대립과 선 또는 교만의 독존을 지양하여 그 둘을 화해하는 태도로 당시에 시행되던 모든 수행방법을 망라하여 그 어느 것에도 우위를 두지 않는 교화의 체계를 수립하였다.

보조선은 어느 하나를 들어 그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 보조선 속에는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62)의 지해선(知解禪)이 있고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

의 선교일치가 있고, 혜능(638-713)의 무상정혜(無相定慧)에 입각한 불교 본연의 계정혜삼학균수(戒定慧三學均修), 정혜쌍수가 있고, 법장현수(法藏賢首, 643-712)를 비판한 이통현(646-740)의 특유하고도 독자적인 원돈신해(圓頓信解)의 방법이 있으며, 그 당시 중국에서 최초로 체계화된 대혜종고의 간화경절선(看話徑截禪)이 들어 있다.

보조는 문벌, 파벌을 따지지 않고 여러 종류의 기질과 근기를 지닌 사람들이 두루두루 불교의 지혜에 접하기를 바라는 대승의 방편설을 택하여 이 모든 교설과 수행방법을 삼원(三元)적 교화방편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른바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경절문 등이 그것이다.

지눌은 「육조단경」을 읽고 마음에 계합하는 바가 있었고, 이통현의 「신화엄경론」을 읽고 선과 화엄교가 다르지 않음을 믿을 수 있었다.

대혜의 간화선 역시 지해병(知解病)에 시달리는 일부 화엄교가의 학인들에게 또 대오병(待悟病)에 물든 선종의 선사들에게 열 가지 병폐, 즉 십종병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소개했던 것이다.

대혜종고는 간화유일주의를 주장했으나, 지눌은 삼원체계의 하나로서 최상근기에게나 적합한 수행방법으로 간화경절문을 수용한 것이다.

지눌의 초종파적인 태도와 회통적 관용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 참고문헌

- 鄭性本. 『禪思想史』. 禪文化研究所. 1993.
- 蔡植洙. 「大慧宗杲의 思想研究」. 『동아논총』 「대혜의 서장과 보조선」. 『보조사상 2』
- 원 응. 「간화선」. 장경각. 1993.
- 徐閔吉. 「고려 임제선법의 수용과 전개」. 『보조사상 8』. 1995
- 沈在龍. 「보조선과 임제선」. 『보조사상 8』. 1995
- 장순용. 『참선의 길』. 고려원. 1997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역경,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 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회의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함께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할 가치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모두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그동안 동참해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1-001097 ©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540-930) 송광사 강원 능원 (061) 755-5302

♣ 불교자료 CD 판매

기초교리부터 경륜론 삼장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한 방대한 자료를 작은 CD 한 장에 담았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 주요내용 : 논문 500여개, 문화, 그림,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레크레이션, 유적답사, 참고자료, 큰스님 법문, 불교관련 도서목록, 대만 불광사전, 아함경 색인프로그램 등.

■ 가 격 : 오천원

■ 판매 처 : 송광사 내 불일서점(061-755-5305), 농협 : 615107-51-014821 (예금주 송광사)

♣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카세트 TAPE ... 법화경 1~2 | (33개) | 지운 스님 / 48,000원 |
| 인도철학 | (18개) | 정연 스님 / 25,000원 |
| 차 이야기 | (17개) | 용운 스님 / 25,000원 |
| 유식 30송 (교재포함) | (11개) | 정화 스님 / 25,000원 |
| 중 론 | (23개) | 정화 스님 / 30,000원 |
| 도덕경 (교재포함) | (16개) | 혜거 스님 / 23,000원 |
| ■ 비디오 TAPE ... 영성의 불교적 이해 | (1개) | 지운 스님 / 7,000원 |
| 설법하는 법 1~4 | (4개) | 진옥 스님 / 30,000원 |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061)755-5302 ※ 전화주문도 받습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0289 (가입자 : 송광사 서기)

※ 강원 사정으로 인하여 '금강경 오가해' 테이프를 반납받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구입한 '금강경 오가해' 테이프를 반납해주시는 분께는 테이프값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본 테이프의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들, 고통받는 자·병든 자를 위하여 아파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 가진 것이 없어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존의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자비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보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온갖 종류의 고통 속에서 아픈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빈곤, 외로움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약 받지 못한 생명을 아픔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을 되찾아 준다면 우리사회는 아름답고 살아 불만한 가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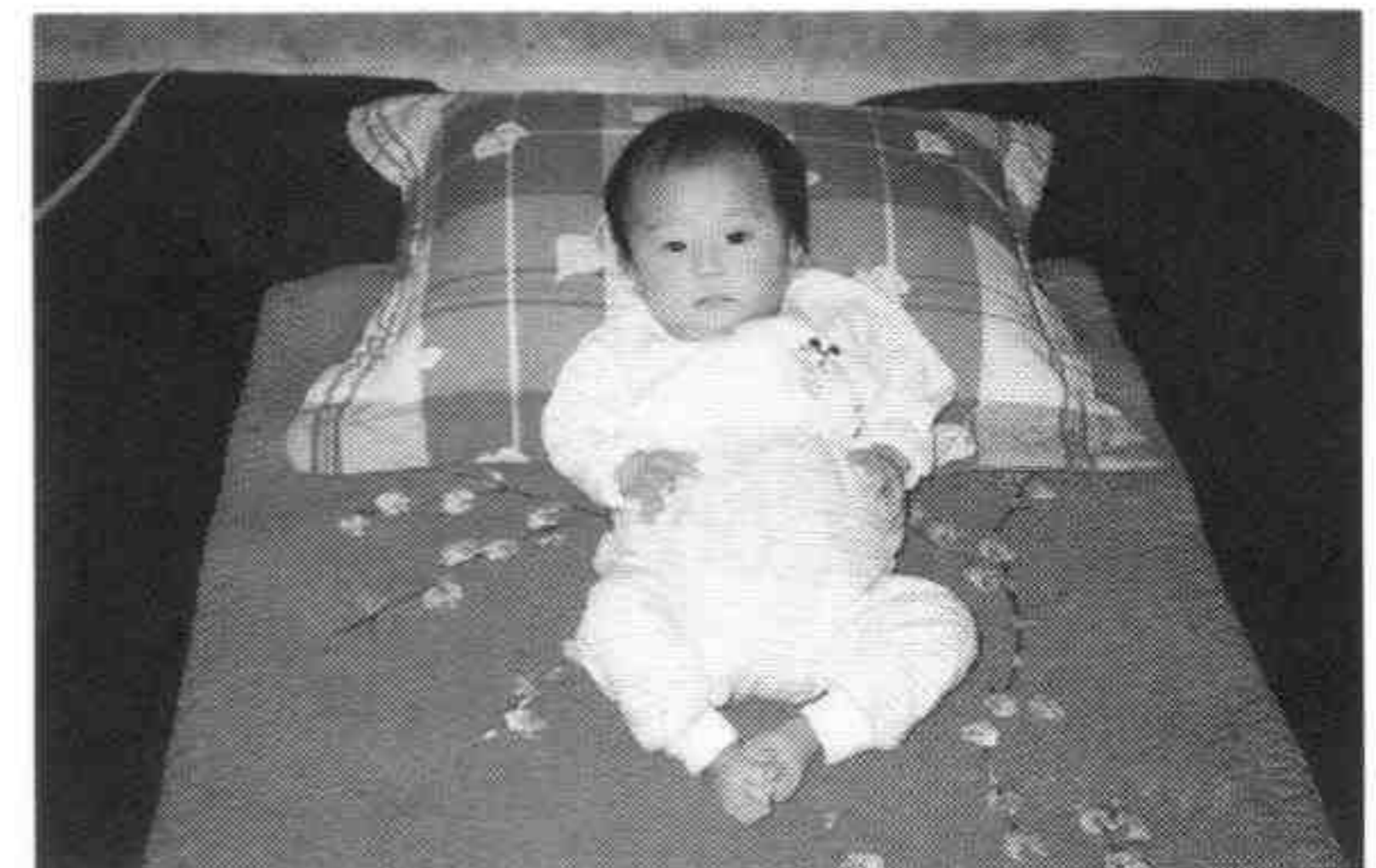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한국심장재단과 결연하여 심장병 환자 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푼푼이 모은 작은 사랑의 손길로 새 생명을 찾아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이들을 볼 때, 이러한 성금 모금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파하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새 생명을 찾아줄 후원자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 환자 돕기 후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66-02-058950 ● 예금주 : 김 홍 제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 보월 (061)755-5302

☞ 직접 결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207호
총무과 황영옥 과장 (☎ 02-416-8763)

1999. 9. 21 1차 환자 지원
2000. 2. 8 2차, 3차 환자 지원
2000. 3. 28 4차, 5차 환자 지원
2000. 4. 4 6차 환자 지원
2000. 5. 23 7차 환자 지원
2000. 6. 27 8차 환자 지원
총 8명의 지원 환자 중 3명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나머지 분들도 곧 수술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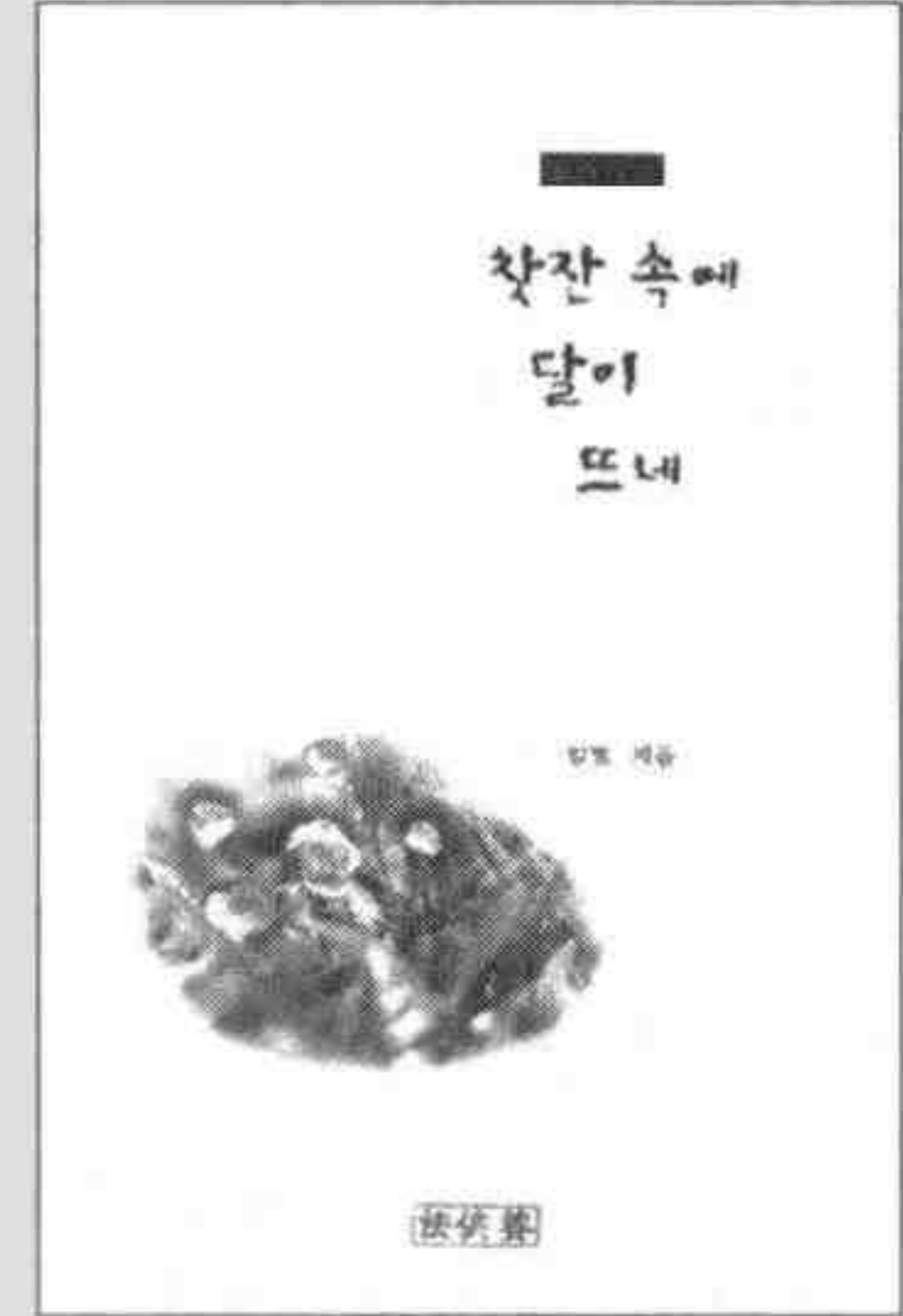
찾잔 속에 달이 뜨네

차·수·행·법

조계산 송광사에 들어서면 소슬한 바람 자락마다 대나무 소리가 묻어난다. 『찾잔 속에 달이 뜨네』는 범속치 않은 수행도량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문답한 내용을 담았다. 눈빛 푸른 학인스님들의 수행모습이 오롯하게 살아나면서, 차마심과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스님들의 관법(觀法)수행과 간화선(看話禪)수행의 응용이 여법하게 녹아나 있다.

“수행은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입니다. 걸으며 밥 먹으며 수행아닌 것이 없습니다. 道도 藝도 일상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참다운 진리입니다. 진리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 나갈 때, 괴롭고 힘든 삶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수행의 참뜻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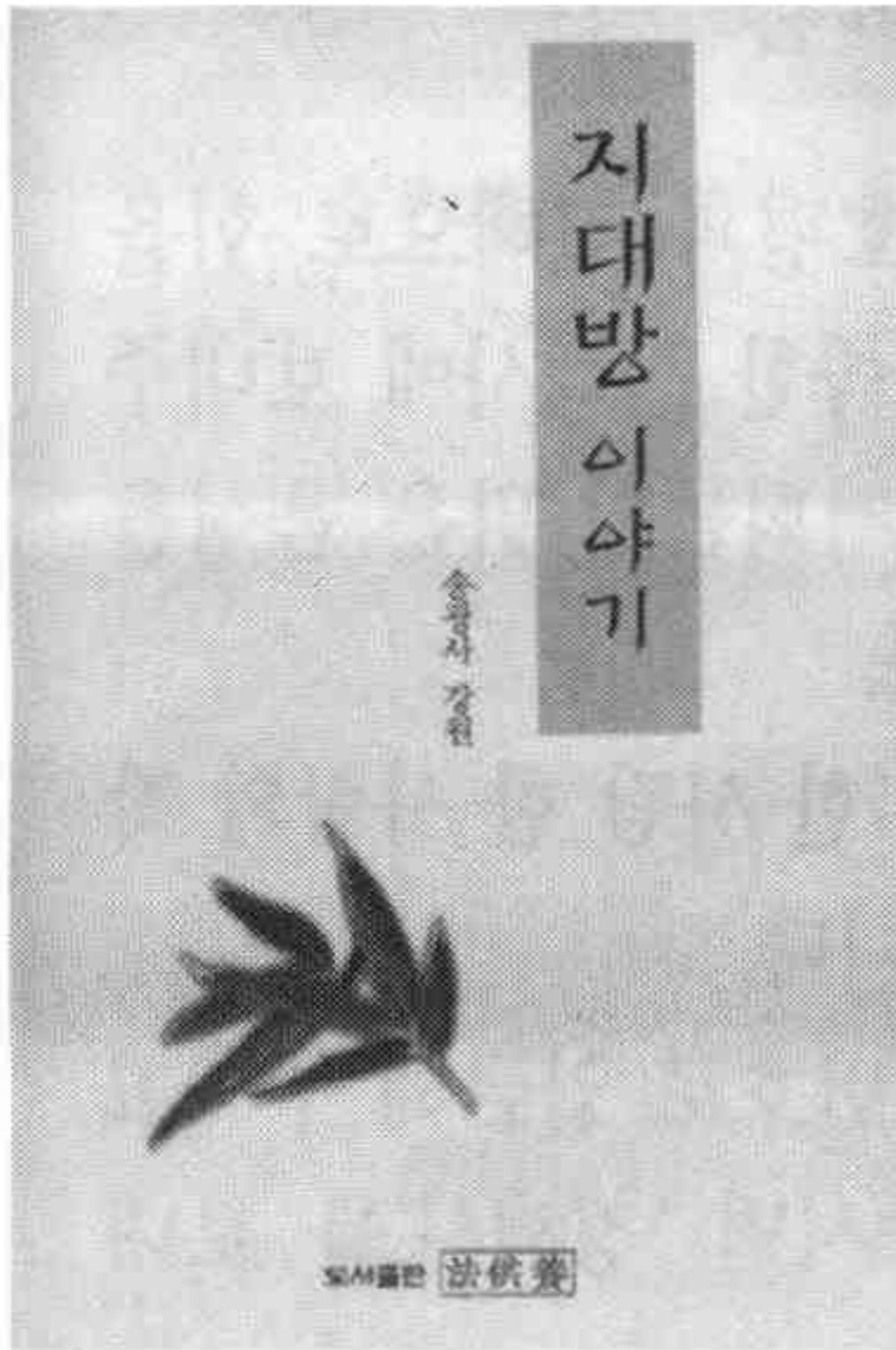
한 잔의 차 마심이 그대로 우주의 몸짓이요, 생명살림의 아름다운 춤이 아닐 수 없다. 차마시는 행위 자체가 항상 수행의 방편이면서 차마시는 그 자리가 수행도량이다.



지운 스님 지음
도서출판 법공양 펴냄



지대방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우리 강원에서 쪽 참선반에 들어 공부해오던 덕현 스님이 다섯 살짜리 꼬마한테 범거량을 했다가 일격에 나가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스님이 후원쪽을 돌아가다가 문제의 꼬마와 마주치는 순간, 한 눈에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아보고 물었다.

“어디서 온 놈이냐?”

틈을 주지 않고 날아드는 꼬마의 반격이 너무 날카로웠다.

“넌 누구냐? 길을 막지 마라!”

(본문 중에서)

유명서점이나 불교전문 서점에서 구입 하십시오.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강원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법보시하실 분은 송광사 강원 (061-755-5302)으로 연락바랍니다.

어느덧 20호를 맞은 소식지 가운데 소중한고 맑은 이야기를 추려서 <지대방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로 엮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해온 도반들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대방이야기>는 갓 출가한 햇병아리 스님들이 모여 사는 송광사 강원 의 일화를 모은 것이기에, 너무나 맑은 영혼들이 담겨 있습니다. 풋풋한 스님들의 이야기로 한꺼풀 치장된 마음의 옷을 벗었으면 합니다.

편집후기

출가해서 자기를 드러내 놓는 일이 힘들기만하다.
비록 우리끼리의 작은 잔치지만 정혜사 편집 또한 출가자의 분상이기에 한 자 한 자 마음 일을 거스르지 않고자 힘써 해왔는데, 벌써 물러나라는 도현스님의 눈치가 무섭다.
새로운 원고를 받을 때마다 성숙해지는 마음들, 자신도 모르게 손뻑치는 순간들, 그래서 우리 편집부에겐 글은 정직한 거울과 같았다.
이제 정혜사 소임을 놓으며 지나간 흔적이 있어 부끄러울 수 있다면 한번쯤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괜찮을 듯하다.

꽃지 이야기

7월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굵은 땀방울.
자루 빠진 호미의 서툰
손놀림으로도
밑이 잘 든 감자가 뽀얀
속살을 드러내고,
양다문 입술엔 어느새
단내가 풀풀
도 닦는 일이 이와 같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수행하련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무관스님, 일국스님, 류인석, 왕경하, 이영숙, 이현옥, 박금희, 광영기, 이훈희, 정순명, 임호식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율주스님, 송광사 율원

강원 발전기금 도와주셨습니다.

유나스님, 진옥스님, 원통스님, 덕장스님, 일장스님, 철오스님, 부산 선암사, 도림사, 유마사, 원각사, 이영숙, 박홍근, 이순득, 윤한식, 박복자, 이현자, 서귀자, 일선화, 조석희, 도달기, 배외군, 박득원, 이희림, 문수영, 박윤희, 이숙희, 이안숙, 김염순, 이경연, 남석련화, 이복연, 마산·창원·부산강원후원회, 순천 강원후원회, 이현재, 신증녀, 김현정, 장임숙, 최순분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호평과 질책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직은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정혜사에 보내주시는 불자님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6-00446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1)755-5302

■ 주소가 바뀌신 분은 편집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4년 송광사 전통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방부받는 반

| | | |
|-----------|----|------|
| 사미반 | 신입 | 00 명 |
| 사집반 | 편입 | 0 명 |
| 사교반 | 편입 | 0 명 |

(치문반은 편입 방부 받지 않습니다.)

■ 자 격

사미반 :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제출서류

| | |
|---------------------|-------------|
| 방부원서 | 2부(강원 소정원서) |
|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
| 승적사본 | 1부 |
| 승려증 사본 | 1부 |
| 전학증, 수료증(편입생) | 1부 |
| 사 진(3×4) | 3매 |
| 건강진단서 | 1부 |
| 방부금 | 20만 원 |

- 준비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4년 9월 10일 ~ 10월 10일
- 문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山神님 산을만다 萬樹千草 길러내서
우리네 生活에다 百가지로 도읍신데
어쨌다 人間徒背는 山神恩功 몰나라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중에서 -

山神堂

설법전 뒤편으로 소박하게 자리잡은 산신각이 말없이 치락대를 지키고 있다. 현재 건물은 1892년 3월에 조성되었으며, 1886년에 그려진 송광사 지도(규장각 소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전부터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안된 산신탱은 1896년에 금어(金魚) 香湖妙英과 龍船天禧가 조성하였다.